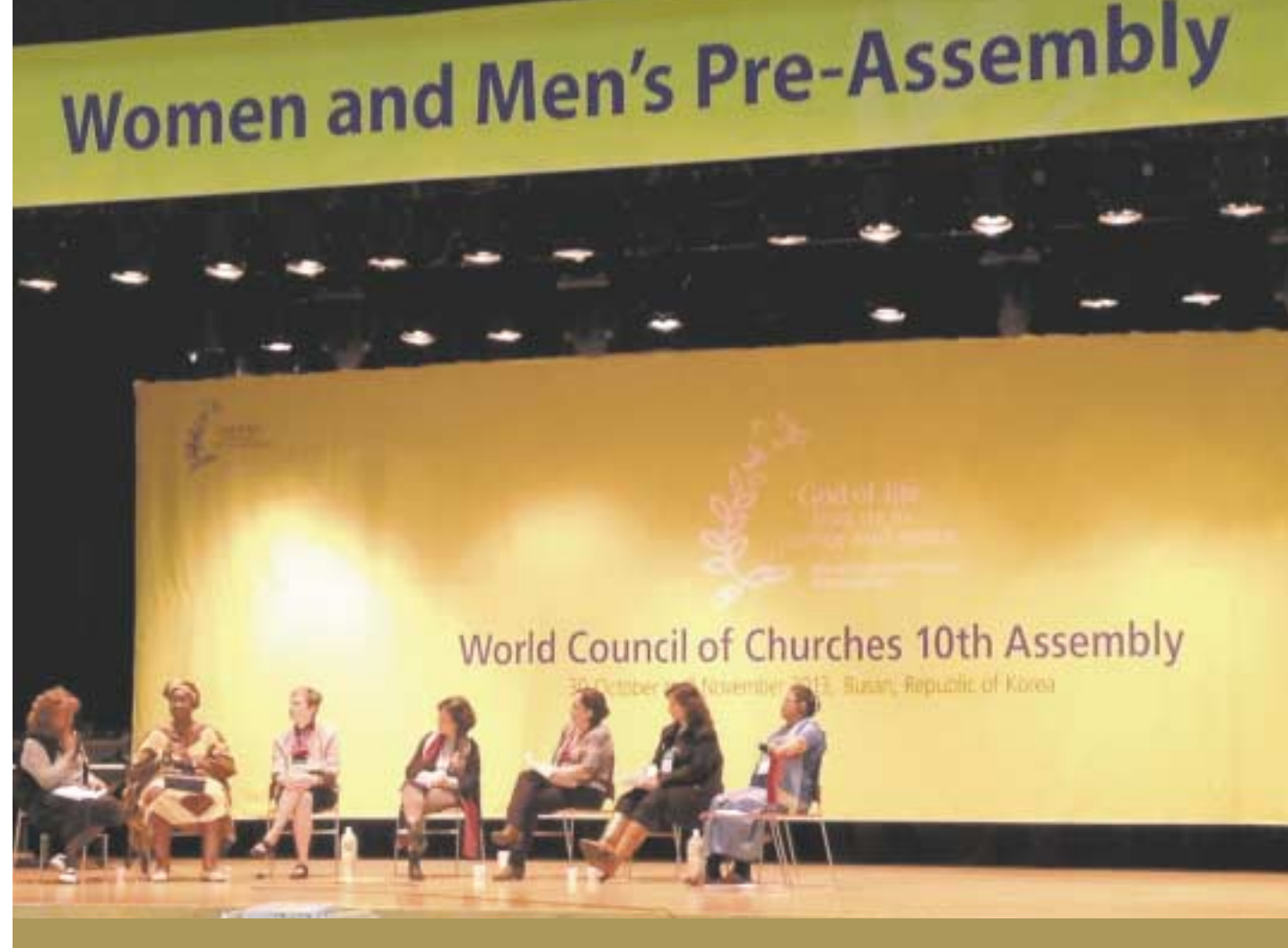


**YWCA목적**

젊은 여성들이 하나님을 창조와 역사의 주로 믿으며 인류는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자매임을 인정하고 예수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자기 삶에 실천함으로써 정의 평화 창조질서의 보전 (保全)이 이루어지는 세상을 건설함을 목적으로 한다.

**YWCA기도문**

거룩하신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계 125개국과 한국에 YWCA를 세워주시고  
 인류의 평화와 건강한 사회를 위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일하시니 감격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땅에 정의가 강물같이 흐르게 하옵소서  
 풍성한 생명살림으로 평등한 하나의 세상 되게 하옵소서  
 사랑과 책임으로 섬기며, 나누며, 겸손히 순종하게 하옵소서  
 생명의 노래를 부르는 Y운동체로 늘 깨어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손을 잡으시어 좁은 길을 걸으며  
 하나님나라의 새 역사를 꿈꾸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한국YWCA의 전국 회원YWCA 가족**

<b>가</b>	<b>다</b>	서울 02.3705.6000	울산 052.247.3520	천안 041.575.0961
강릉 033.651.1385	대구 053.652.0070	서천 041.951.6400	원주 033.742.6090	청주 043.265.3700
거제 055.682.4950	대전 042.254.3035	성남 031.708.2503	의정부 031.853.6332	춘천 033.254.4878
경주 054.772.8141	동해 033.531.3007	세종 041.865.0872	익산 063.857.8910	충주 043.848.3240
고양 031.919.4040	<b>마</b>	속초 033.635.3523	인천 032.424.0524	<b>타</b>
광명 02.895.1966	마산 055.246.8746	수원 031.252.5111	<b>자</b>	통영 055.646.2547
광양 061.762.0012	목포 061.242.1611	순천 061.744.7990	전주 063.224.5501	<b>파</b>
광주 062.524.3511	<b>바</b>	<b>아</b>	제주 064.711.8322	파주 031.945.5998
김해 055.332.6000	부산 051.441.2221	안동 054.854.5482	제천 043.646.6009	평택 031.651.7701
<b>나</b>	부천 032.668.9700	안산 031.483.6536	진주 055.755.3463	포항 054.274.4444
남양주 031.577.7762	<b>사</b>	안양 031.455.2700	진해 055.542.0020	<b>하</b>
남원 063.632.7002	사천 055.833.2344	양산 055.367.1144	<b>차</b>	하남 031.793.7771
논산 041.736.7393	서귀포 064.762.1400	여수 061.654.2161	창원 055.283.9488	

2013.11

**한국YWCA**

**이달의 생각**  
 밀양 송전탑 건설과 전력 대란 문제

**이달의 현장 ①**  
 제10차 세계교회협의회 총회

**이달의 현장 ②**  
 제15회 청주여성영화제

**오늘의 여성**  
 여성 폭력 추방을 위한 YWCA 정책 제안서



만약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함만으로 다가오신다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숨 막히는 복종과 자유 없는 억눌림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하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은 한없이 연약한 분입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는 바보 같은 분입니다.

그러기에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은 가장 다정한 분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분 안에서 가장 깊은 편안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참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과 선함을 통해 만날 수 있습니다.

강한 하나님은 우리를 두렵게 하지만, 선한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사진·글 / 최 병 성 (목사, 환경생태운동가)

## 목 차



### 표지이야기

제10차 세계교회협의회 총회가 열렸다. 여성 사전대회 중 '가부장제에 대한 여성종교지도자의 경험과 대응에 관한 토크쇼(Talk Show)'에 나랏자이 굼본즈반다 세계YWCA 사무총장이 함께 했다.

- 04 이달의 생각 \_ 밀양 송전탑 건설과 전력 대란 문제 | 백혜진
- 05 이달의 인물 \_ 홍인숙 뉴욕 퀸즈Y 고문총무
- 06 이달의 현장 ① \_ 제10차 세계교회협의회 총회
- 08 에큐메니칼 운동과 YWCA \_ 한국YWCA와 제10차 세계교회협의회 총회 | 이천진
- 10 오늘의 여성 \_ 여성 폭력 추방을 위한 YWCA 정책 제안서 | 세계YWCA
- 12 이달의 현장 ② \_ 제15회 청주여성영화제 | 김태순
- 14 현장의 소리를 찾아 \_ YWCA 어린이집 정책워크숍 | 정경미
- 16 생명 이야기 \_ 먹거리는 생명이다 | 이윤숙
- 18 성명서 \_ 765Kv 밀양 송전탑 건설 중단을 촉구하는 한국YWCA 성명서
- 20 평화의 여정 \_ 문화교류로 통일의 물꼬를 트길 | 강동완
- 22 감동이 있는 나눔 \_ 콩 한쪽 나누는 마음으로 함께 합니다 | 흥성 행복한국교회
- 23 YWCA PR기자단 \_ 평화감수성 UP | 김명숙
- 24 돌봄협동조합 \_ 2013 YWCA 직업훈련 담당자 역량 강화 워크숍 | 김해경
- 26 카다리 \_ YWCA 청소년 활동가 워크숍 | 조은선
- 28 YWCA와 사회 \_ YWCA가 만들어가는 문화 | 국민일보 10월 기사 모음
- 30 세계YWCA-YMCA 공동기도주간 \_ 변화가 되라(Be the Change)
- 32 월례아침기도회 \_ 다시 프로테스트 - 10월의 프로테스탄트 | 이정배
- 33 연합회 소식
- 34 회원YWCA 소식
- 43 문화가 산책 \_ 신간 소개

# 밀양 송전탑 건설과 전력 대란 문제

글 | 백혜진 (연합회 실행위원)

고해성사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고백하자면, <밀양 송전탑>은 제목만 나에게 익숙해져 있었지 실상 그 내용은 잘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가끔 신문을 보며 할머니들이 왜 이리저? 하며 바쁘다는 이유로 제목과 사진만 보고 지나친 밀양 송전탑에 대해 이번 기회에 생각을 정리해 보고 여러분들과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지난 10월 18일 한국YWCA 연합회 회원일동이름으로 발표한 <765Kv 밀양 송전탑 건설 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서에서 크게 네 가지로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첫째, 765Kv의 초고압 송전탑 건설을 강행하는 것은 ‘생명위협’의 문제’이며, 둘째, 안전을 위협하는 ‘기본권 침해의 문제’이다. 셋째, 대도시 전력 수요를 위해 한 지역을 희생양으로 만드는 것은 에너지 사용을 둘러싼 ‘부정의의 문제’이며, 넷째, 공론화와 합의를 통해 결정하지 않고 밀실행정과 밀어붙이기 식 국책사업 관행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민주주의 역행의 문제’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송전탑반대운동을 하는 것은 765Kv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보통 우리 가정에서 사용하는 220v의 전기도 우리 몸에 영향을 준다고 해서 헤어 드라이기, 전기 장판, 핸드폰 등의 사용을 절제하려고 하는데, 가정용의 3,477배에 달하는 765,000v의 송전탑이 집 위로, 논밭위로, 삶의 터전위로 24시간 365일 지나는 밀양의 미래는 어떻게 될런지 걱정이 됩니다. 특히, 그들의 필요가 아닌 소비적인 대도시 전력수요를 위

해 한 지역을 희생양으로 삼는 것은 대도시 거주자의 한 사람으로 기습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의 창조 질서 회복에 대해 좀 안일하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아주 약간의 노력과 불편함을 감수하면 이루어 질 것이라는 착각과 함께, 심정적으로는 찬성하지만 전력대란이라는 불편한 문제와 직면했을 때 우리는 슬그머니 눈을 감고 싶은 충동을 느낍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창조 질서 회복운동은 버튼 하나 누르면 바뀌는 TV화면이 아니라, 우리의 전력 소비의 패턴과 정부의 에너지정책이 바뀌지 않으면 절대 도달 할 수 없는 아주 힘든 목표입니다.

또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창조질서의 회복에 나의 노력과 땀방울을 묻히기를 원한다면, 오랜 기간에 걸쳐 과도한 소비에 익숙해진 우리의 전력소비습관에서 과감하게 벗어나야만 합니다.. 우리가 소비자로서 노력을 한다면, 수레바퀴의 다른 한쪽인 정부는 공급 위주의 에너지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적절한 수급 관리를 통해 얼마든지 예방하고 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위험하고 불안한 핵발전소에 의존하는 정책에서 벗어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에너지 관리 정책을 수립하는 데 힘을 기울이라”고 성명서에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가는 길이 힘들어도,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데 함께 하시겠습니까? 



# 홍인숙 뉴욕 퀸즈Y 고문총무 필요로 하는 그곳에 있게 하소서

미국 뉴욕 퀸즈에는 한국 동포들을 위한 YWCA가 있다. 1978년 퀸즈YWCA를 창립한 홍인숙 고문총무를 10월 2일 한국YWCA연합회 회관에서 만났다.



## YWCA와 인연을 맺게 된 계기가 있었나요?

중학교 때부터 양로원 봉사활동을 하면서 봉사에 관심이 많았다. 크면서는 농촌에 관심이 많아 방학 때는 농촌봉사활동을 다녔다. 1967년에 YWCA는 대표적인 여성사 회단체였는데 사회봉사에 관심이 많던 나를 지도교수가 적극 추천했다. 그래서 서울 지역활동부 간사로 일을 시작했다. 나는 항상 보따리를 싸서 밖으로 돌아다녔다. 변두리 지역의 여공, 버스안내양, 윤락여성, 교도소 여성들을 만났었다. 소외된 사람들에 대해 마음이 더 갔다. 그러다가 1970년 Y를 그만두고 미국 유학을 준비했다. 그런데 그러던 중 박순양 총무님이 대구가 많이 힘드니 대구에 가서 일을 좀 도와달라고 부탁을 하셨다. 그래서 대구에서 두 달을 일하고, 이어 대전에서도 총무로 10개월을 더 일했다. 그리고 미국으로 갔다.

## 퀸즈YWCA는 어떻게 창립하게 되었나요?


퀸즈YWCA를 세우기 위해 미국에 간 것은 아니었다.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임상병리학을 공부했다. 그리고 1974년에 병원에 취직하고 안정적으로 생활했다. 그런 생활을 즐기고 있었는데 약 4년 후 박순양 총무님이 미국에 오셨다. 그때 총무님이 “공부 끝나고 다시 한국에 올 줄 알았는데 여기에 이렇게 편안하게 놓고 즐기러 왔나”고 하셨다. 그 말씀이 마음에 딱 걸렸다. 이를 계기로 드류신 학대학원에서 신학을 공부했다. 1978년 신학교 졸업을 앞두고 박순양 총무께 편지로 “5월에 졸업인데 한국에서 무

엇을 하면 좋겠습니까”하고 여쭙었다. 그랬더니 “한국에는 일할 사람이 많다. Y에서 훈련받은 사람은 필요로 하는 곳에 가서 봉사를 해야 한다. 거기서 Y를 하라”는 총무님의 답이 왔다. 가장 친한 친구인 서희진 권사도 내게 여기서 Y를 시작해보라고 용기를 주었다. 그래서 1978년 5월 6일, 9명이 모여 뉴욕 퀸즈YWCA를 설립했다.

## 청소년, 노인 프로그램 운영

지금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셨기 때문에 퀸즈 Y를 시작할 수 있었던 것 같다. 그때 간사 1명과 업무를 시작했는데, 그때는 하나님이 주신 두 손, 두 발이 있으면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하나님은 정말 모든 것을 예비해 놓으셨다. 가장 먼저 시작한 것은 어린이 방과후학교로 아이들에게 한국역사와 영어를 가르쳤다. 방과후학교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으니 노인문제가 보였고 갭들과 어울리는 청소년들을 위해 청소년 프로그램도 운영했다. 문제가 보이니 프로그램이 확대되었다. 그러다 1993년 퀸즈YWCA 회관까지 건립하게 되었다. 퀸즈Y가 지역에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것 같아 나는 55세에 은퇴를 했다.

## 지금 홍 총무님의 기도제목은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들이 다시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가는 것을 원한다. 개개인이 정말로 주님 말씀을 실천하여 크리스천의 향기를 낼 수 있으면 좋겠다. 또한 남과 북이 통일을 이루면 좋겠다. 

# 탈핵 · 여성폭력추방은 그리스도인의 사명



마당 워크숍 \_ 왼쪽부터 원영희, 강남순, 나랏자이 굼본즈반다, 이미정, 왕이팅



마당 워크숍 참석자들

마당 부대행사 \_ 서울YWCA 소리모아 팀 공연

오랫동안 기다려온 세계교회협의회 제10차 총회가 10월 30일부터 11월 8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열렸다.

전 세계 345개 회원 교회 약 3,000여명의 참석자가 모였다. '생명의 하나님, 우리를 정의와 평화로 이끄소서' 라는 주제로 전체회의, 에큐메니칼 대화, 마당 워크숍 등을 통해 향후 7~8년간의 정책을 수립한다. 또한 전세계 교회의 일치와 연합, 선교, 타 종교와의 대화 방안을 중점적으로 모색한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회원인 한국YWCA연합회는 이번 총회의 여성 사전대회와 마당 프로그램 워크숍에 참여했고 광주, 대전, 부산, 순천, 여수, 청주YWCA도 함께 했다.

사전대회는 총회 일정 직전인 10월 28일부터 29일에 진행되는 대회로 총회에서 다룰 의제를 미리 논의한다. 여성 · 청년 · 장애인 · 원주민 각각 4개의 영역으로 나누어 진행되는데 여기서 나온 의견이 본회에 폭넓게 반영된다. 여성 사전대회에는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중동, 아시아 등지에서 온 500여명의 여성들과 한국 참가자 200명이 참석했는데 한국YWCA연합회 실무진 1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총회 주제에 대한 여성 관점의 재해석, 성에 기초한 폭력 전반을 극복하는 우수사례 공유, 성 정의(Gender Justice)를 수립하기 위한 과정, 실행계획 전반을 포괄하는 성 정책 개발, 남성 참가자들과의 협력과 대화가 있었다. 이번 논의를 통해 참가자들은 가부장제 철폐와 인신매매, 에이즈 문제를 총회 정책에 반영시키기로 했다. 여성 사전대회 중 '가부장제에 대한 여성 종교지도자의 경험과 대응에 관한 토크쇼(Talk Show)'도 진행됐는데 나랏자이 굼본즈반다 세계YWCA 사무총장이 패널로 참여하여 자신의 경험과 YWCA 활동을 나누었다.

WCC 총회는 다양한 그룹과 에큐메니칼 협력단체가 참여하여 워크숍, 전시회, 부대 행사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데 이번 부산 총회에서는 '마당'이라는 한국 전통 개념을 사용하여 프로그램을 구성했다. 한국YWCA와 세계YWCA는 마당에 부스를 마련하여 세계의 대표

들에게 한국Y 북한어린이돕기 운동, 여성폭력추방운동을 알렸다.


11월 4일 한국YWCA가 마당 프로그램 중 '여성폭력방지를 위한 크리스천의 역할'을 주제로 워크숍을 열었다. 여성에 대한 폭력은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범죄이며, 피해자뿐만 아니라 공동체 전체에 치명적인 상처를 남기고 하나님 나라를 해체하는 범죄임을 분명히 했다. 주제 발제를 맡은 여성신학자 강남순 교수(텍사스크리стен대학교 브라이트신학대학)는 종교와 사회 안에서 보이지 않는 형태로 존재하는 여성폭력의 다양한 형태를 알고 이에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교수는 여성에 대한 가시적인 폭력 외에도 여성이란 이유로 삶의 여러 과정과 국면에서 원천적으로 배제되고 있는 불가시적인 폭력에 민감해야 함을 강조했다. 동일노동에 대해서 여성이 남성 임금의 65%로 여성노동의 가치가 여전히 저평가되고 있는 경제적 폭력, 기독교 내에서 창세기 1, 2장에 나타난 창조 설화 상징을 남성의 전유물로 봄으로써 여성의 지배를 정당화해 온 종교적 폭력 등이 그것이다. 그는 앞으로의 이론을 넘어 실천할 수 있는 행동 전략을 강조했다.

이어 진행된 분야별 발제에서 세계YWCA 사무총장 나랏자이 굼본즈반다는 여성폭력 예방과 그 피해자를 지원하는 일은 인권을 보호하는 신성한 일이라며, 여성과

동에 대한 폭력의 문제를 인권과 존엄성의 차원에서 접근할 것을 강조하였다. 여성 폭력 추방운동은 세계YWCA가 가장 우선적으로 벌여온 추방운동이다. 전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어린이와 소녀의 강제 조기결혼은 심각한 인권 유린 행위이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여성에게 하나님의 정의와 안전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외에도 세계YWCA가 가정폭력과 가족 내의 성폭력 등으로 고통가운데 있는 여성과 소녀들을 위한 쉼터를 제공함으로써 여성들의 안전과 회복, 경제적 자립을 위한 요구에 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미정 위원(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여성폭력 추방을 위한 한국사회의 노력'에 대한 발제가 이어졌는데 기본적으로 한국사회가 폭력에 대해 무감각하며 점진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지만 성폭력 생존자에 대한 편견이 팽배한 것으로 보고하였다. 마지막으로 '여성폭력 추방을 위한 젊은 여성의 요구'란 제목으로 왕이팅(대만의 장영기독교대학교) 학생의 발제가 있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여성의 폭력이 참으로 많음을 지적하면서, 세상이 이름 지어준 '미'의 기준에 따라 자기답게 살아가지 못하는 젊은 여성의 자기반성의 외침이 있었다. 아가서 4장 7절 말씀을 인용하며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정말 아름답고 진실로 흠 없이 완전한 모습"으로 창조되었음을 상기시키면서 여성이 자기 자신의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소리 내어 외칠 것을 주장했다.

마당 프로그램 부대행사에서는 한국YWCA '여성폭력추방을 위한 K-pop공연'을 열었다. 서울YWCA 대학생 동아리인 소리모아 팀 대학생 13명은 K-Pop 노래를 통해 관객들에게 여성폭력추방의 메시지를 전달하였다. 당차

고 자신감 넘치는 여성의 모습을 표현한 '소리쳐봐', 'Street Life', 여성폭력생존자들을 위로하는 'Heaven'과 'Butterfly'으로 힐링 메시지를 전달했다. 'Fame'으로 여성폭력생존자들이 더 이상 폭력의 그림자에 매이지 않고, 자신의 꿈을 향해 나아가도록 격려하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마지막 곡 '이 세상 모든 여성들이(All Around the Nation, 아프리카 민요)'를 부르며 여성폭력추방을 위한 연대의 울림을 남겼다.

한국YWCA 중점 운동인 탈핵운동에 대한 세계교회들의 협력과 동참을 호소하는 모임도 이어졌다. 부산YWCA, '핵 없는 세상을 위한 한국 그리스도인 연대'는 11월 2일 '세계교회와 함께하는 고리원전 간담회'를 갖고 정문 앞에서 기도회를 열었다. 또한 11월 4일 벡스코 정문 앞에서 '세계 교회와 함께하는 핵없는 세상을 위한 촛불기도회와 문화제'를 열고 '세계교회가 10차 총회를 통해 탈핵을 선언하고 총회 선언문에 명문화할 것, 총회 이후 탈핵 프로세스를 통해 탈핵대안사회 건설을 모색할 것, 탈핵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강력한 액션 플랜을 가동해야 할 것'을 촉구했다. WCC 대표단으로 참석한 중언자들이 기도회에 참석해 "핵없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야말로 세계교회가 부르짖는 정의와 평화에 부합하는 일"이라고 강조하고 이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며 기도했다. 한국의 대표적 기독교여성시민단체인 한국YWCA는 이번 WCC 제10차 총회에서 여성 폭력 문제와 탈핵을 전세계 기독교인 대표들에게 알리며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 세계를 함께 이루어나갈 것을 호소했다. 

# 한국YWCA와 제10차 세계교회협의회 총회

글 | 이천진 (공정감리교회 담임목사)



한국YWCA의 목적과 세계교회협의회(The World Council of Churches, WCC) 한국YWCA는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목적문에서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젊은 여성들이 하나님을 창조와 역사의 주로 믿으며 인류는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자매임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자기 삶에 실천함으로써 정의, 평화, 창조질서의 보전이 이루어지는 세상을 건설함을 목적으로 한다.” 한국YWCA의 목적은 정의의 나라, 평화의 나라, 생명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는 것이다. 한국YWCA는 1922년에 창립 때부터 목적문이 있었다. 한국YWCA의 목적문은 90년 동안 7차례의 개정이 있었다. 한국YWCA의 현재의 목적문은 1998년에 개정한 것이다. 한국YWCA의 목적문은 세계교회협의회(The World Council of Churches, WCC)의 신앙고백에 근거를 두고 있다. 정의, 평화, 생명 운동 즉, JPIC(justice, peace, and integrity of creation)운동은 1983년에 ‘예수 그리스도-세상의 생명’ (Jesus Christ-the Life of the World)이라는 주제로 밴쿠버에서 열린 세계교회협의회(WCC) 제6차 총회에서 처음으로 채택되었다. 세계교회들이 서로 연합하여 정의, 평화, 창조질서 보전을 위해 헌신하자는 것이었다. 정의, 평화, 생명(JPIC)을 위한 첫 번째 협의회는 1986년 스위스 글리온에서 개최되었고, 1987년 제네바에서 개최된 세계교회협의회 중앙위원회는 1990년에 서울에서 JPIC 대회를 개최하기로 결의하였다. 1990년에 공의회 형태로 소집된 JPIC 대회가

서울에서 열린 이유는 전 지구적인 세계의 문제가 한국에 집약되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경제적 양극화, 분단에서 오는 전쟁무기의 과다 보유, 개발에 따른 자연 생태계의 파괴는 전 지구적인 세계 차원의 문제인데, 그 모습을 한국에서 볼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폰 바이츠제커 박사는 이렇게 말하였다. “JPIC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기독교 정신(구원)은 아직 실현되지 않았다.”


## 한국YWCA와 세계교회협의회(WCC)의 신앙고백

한국YWCA가 목적문을 세계교회협의회(WCC)의 신앙고백에 근거를 두는 것은 한국YWCA가 세계교회협의회(WCC)의 영향으로 출발했기 때문이다. 세계교회협의회(WCC) 창설자인 존 모트(John R. Mott)는 에큐메니칼 운동의 선구적 역할을 한 세계학생기독교연맹(World Student Christian Federation, WSCF)의 창설자이고, 국제선교협의회(IMC)의 창설자이기도 하다. 김활란과 김필레는 1922년에 중국 북경에서 개최된 세계학생기독교연맹(WSCF) 세계대회에 한국의 기독교생운동을 대표하여 참석하면서 존 모트(John R. Mott), 그리고 세계 에큐메니칼 운동과 관계를 맺기 시작하였다. 귀국하여 같은 해에 김활란과 김필레는 유각경과 함께 한국YWCA를 창설하였다. 한국YWCA는 세계 에큐메니칼 운동의 영향으로 창설된 것이다. 그리고 2년 뒤, 1924년에 한국NCC의 전신인 ‘기독교협의회’ (Korean National Christian Council, NCC)가 YMCA와

YWCA 중심으로 시작되었다. 1928년에 국제선교협의회(IMC)가 예루살렘에서 세계선교대회를 개최하였고, 이때 한국NCC가 국제선교협의회(IMC)에 정식회원으로 가입하였다. 김활란은 이 대회에 한국을 대표하여 참석하였고, 에큐메니칼 지도력을 인정받아 오랫동안 국제선교협의회(IMC) 부회장으로 활약하였다. 1961년 인도 뉴델리에서 세계교회협의회(WCC) 제3차 총회가 개최되었고, 여기에서 WCC와 국제선교협의회(IMC)가 통합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세계교회협의회(WCC)가 출범하게 된다. 한국YWCA는 세계교회협의회(WCC)의 영향으로 창설되었기 때문에 세계교회협의회(WCC)의 신앙고백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이다.

## 정의운동, 평화운동, 생명운동

한국YWCA는 90년 동안 정의, 평화, 생명운동이라는 에큐메니칼 운동의 차원에서 한국NCC와 함께 에큐메니칼 운동을 활발하게 펼쳐왔다. 1924년에 YMCA와 YWCA가 중심이 되어 출발한 ‘기독교협의회’ (NCC)가 1970년에 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The Korea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NCC)로 변화되었지만, 현재도 한국NCC의 회원단체로서 교회와 함께 연대하며 에큐메니칼 운동을 정성을 다해 전개해 나가고 있다. 한국YWCA의 기여로 한국에서 기독교협의회(NCC)가 시작되었는데, 이제 90년 만에 그 결실로 부산에서 세계교회협의회(WCC) 제10차 총회가 ‘생명의 하나님 우리를 정의와 평화로 이끄소서’ (God of Life, lead us to Justice and Peace)라는 주제로 부산에서 개최되었다. 한국YWCA는 90년 동안 줄곧 정의의 나라, 평화의 나라, 생명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나라 운동을 해왔다. 그 결실이 ‘생명의 하나님 우리를 정의와 평화로 이끄소서’ 라는 고백으로 이어진 것이다. 세계교회협의회(WCC)와 한국YWCA가 정의, 평화, 생명운동을 하는 것은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운동이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3년 동안 치열하게 하나님나라 운동을 하셨다.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이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첫 설교의 주제가 천국, 하나님나라이다.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이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리스도의 사역은 하나님나라 건설에 집중되어 있었다.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이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리스도는 하나님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기도하셨다.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하나님나라는 첫째, 정의의 나라이다. 마태복음 23장 23절 말씀이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채의 십일조는 드리되 율법의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십일조보다 정의(justice)가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다. 둘째, 평화의 나라이다.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이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이 땅에 평화(peace)의 세상을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라고 하셨다. 셋째, 생명의 나라이다. 요한복음 6장 51절 말씀이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 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생명(integrity of creation)을 위하여 스스로 떡이 되셨다. 한국YWCA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나라 운동에 동참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다. 그리스도의 음성이 들려온다. “정의와 평화와 생명 세상을 깨우는 새벽 종소리를 울려라!” 

# 여성 폭력 추방을 위한 YWCA 정책 제안서

세계YWCA (Position Paper on VAW)

여성폭력추방운동(Violence Against Women, Young Women and Girls, 이하 VAW)은

세계YWCA의 가장 큰 운동이슈이며, 2014-2015 한국YWCA 운동중점 중 하나이다.

본 정책제안서는 세계YWCA가 전 세계 여성폭력문제의 현황과 배경, 해결에 필요한 방안들을 제시하는 문서로

세계 120여 회원국에서 여성폭력추방 관련정책제안과 활동을 전개할 때 활용할 수 있다.

## 들어가며

세계YWCA는 현재 120여 개국에서 젊은 여성과 소녀들을 포함한 2천 5백만 여성과 함께 성 평등과 여성의 인권 향상을 위해 범국제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여성에 대한 폭력추방은 세계YWCA가 벌이는 주요 국제운동 중 하나이다. 세계YWCA는 거의 160년의 역사를 통해 공동체 내에서 여성폭력 문제를 해결해왔다. YWCA는 세계 곳곳에서 폭력을 당하는 여성과 소녀들에게 안전한 공간을 제공하고, 여성들이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여성의 사회적·경제적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해왔다. YWCA의 여성폭력 추방 활동의 목표는 모든 여성들이 자신의 삶과 공동체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힘을 갖춘 지도자, 의사결정자 그리고 변화의 주체가 될 권리를 행사하도록 이끄는 데에 있다. 이 YWCA 성명서는 2012년 11월 8일부터 13일까지 대한민국 서울에서 <여성폭력 추방과 평화 구축>을 주제로 열린 <세계YWCA 국제지도력 훈련(ITI)>에 참가한 각국 YWCA 지도자들과 협의를 통해 작성했다.

[젊은 여성과 소녀들을 포함한 모든 여성에 대한 폭력은 신체적, 언어적, 성적, 정신적, 감정적, 경제적 폭력을 포함하지만 이에 한정할 수 없으며, 유해한 문화적·종교적 관습과 전통 그리고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과 착취를 포함한다. 여성에게 해를 가하는 차별적인 법과 관습으로 국가 차원에서 폭력이 자행되는 경우도 존재한다.]

## 배경분석

세계YWCA는 성불평등 즉, 여성과 남성 간 권력관계 불균형, 자원에 대한 여성의 소유권과 통제권, 접근성 등이 모든 여성 폭력의 근본원인이라고 본다. 이러한 불평등 요인이 계속되는 한, 여성에 대한 폭력은 계속될 것이다. 그러므로 세계YWCA는 여성폭력을, 세계인권선언에 명시되어 있으며 또한 모든 종교의 핵심교리를 이루는 기본적인 인권에 대한 구조적 침해행위로 간주한다. 세계YWCA는 또한 전시 성학대를 포함한 군사적 점령과 분쟁이 성불평등과 성에 기반한 폭력을 악화시키는 폭력의 한 형태라고 간주한다. 특히 총기류 확산은 평화로운 나라에서조차 여성에 대한 폭력에 직접적으로 악영향을 준다. 모든 종류의 <여성성기절제(FGM)>와 조혼, 강제결혼을 비롯한 유해한 관습 또한 소녀들에 대한 폭력이다. 이러한 악습은 성적 권리와 재생산 권리를 부정하고, 교육의 기회를 제한하며, 폭력에 더욱 취약하게 만든다. 세계YWCA는 사이버 폭력과 소셜미디어를 포함하여 새로운 형태의 폭력 출현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세계YWCA는 여성에 대한 폭력이 신체적·정신적 건강뿐 아니라 가족과 사회구조를 파괴하고 또 다른 폭력을 발생시키는 등 공동체에 심각한 피해를 입힌다고 본다. 모든 여성에 대한 폭력은 사회전체에 사회적 경제적 비용을 전가하며 보건과 법률 집행체계에 심각한 부담을 준다. 따라서 세계YWCA는 평화문화 구축과 여성에 대한 폭력 근절 없이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없다고 믿는다.

## 여성폭력 추방을 위한 전략적 접근

세계YWCA는 이를 위해 세 가지 측면에서 접근하고자 한다.

- **지역사회 조직**: 훈련과 기술 습득 기회 제공, 모범 실천 사례, 캠페인과 인권에 기반한 프로그램 공유.
- **변화를 위한 주창활동**: 국제적 책임이행(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CEDAW), 베이징 행동강령, 유엔 여성지위위원회, 유엔 인구개발위원회의 합의안, 유엔 안보리결의안 1325, 유엔 인권위원회, 안보이사회의 결의안).
- **영향력 확대를 위한 파트너십**: 모든 형태의 여성폭력 근절을 위한 전략적 협업, 네트워크 구축.

YWCA운동은 다음 영역을 여성폭력 추방을 위해 전략적으로 개입해야 할 필요가 있는 핵심 영역으로 인식하고 지원한다.

- 1. 교육**: 세계YWCA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성 역할 고정관념과 폭력 문화를 타파하는 데 교육이 효과적인 예방 전략이며 중요한 기능을 한다고 믿는다. 정규 교육과정에 소년 소녀들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을 적극 권장하며 올바른 남성성을 재구성하는 공동체 교육과 행동 변화 운동을 장려한다. 또한 모든 여성들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역량강화 운동에 지속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 농촌, 토착민, 이주여성, 배우자와 사별한 여성, 극빈계층 여성 등 교육과 지원도 역량강화 운동에 포함되어야 한다.
- 2. 지역사회 의사결정에 포괄적 참여**: 분쟁과 분쟁 이후 환경에서 여성폭력을 방지하기 위하여 세계YWCA는 유엔 안보리결의안 1325호의 완전한 이행의 일환으로 여성들이 평화구축, 평화협상과 분쟁 해결 등의 활동에 남성과 동등하게 참여할 것을 촉구한다. 동시에 회원국은 국가행동 계획 개발과 유엔 안보리결의안 1325호의 완전한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책임져야 한다. 폭력 예방과 보호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모든 단계와 영역에 걸쳐 적극적이고 의미 있는 여성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 3. 법률적 보호**: 강화된 국제총기관리규제 기준을 비롯하여 무기 사용과 접근을 제한하고 규제하는 법률 입안,

법 집행, 빈곤퇴치, 가해자가 처벌받지 않는 불합리한 관행 타파 노력 등은 여성과 젊은 여성, 소녀에게 가하는 폭력 예방을 위한 중요한 운동 분야이다.


**4. 생존자에 대한 포괄적인 지원과 구제책**: 여성을 위한 포괄적인 지원체제와 구제책은 지역사회의 주도로, 인권에 기반한 접근방식을 통해 지역적 맥락을 고려하여 수립되어야 한다. 여성들의 안전과 회복, 경제적 자립과 같은 상호의존적인 요구들에 부응하기 위하여 관계기관들은 협업해야 한다. 지원체제와 구제책은 심터와 안전가옥, 성적 학대 생존자들을 위한 서비스와 경제적 역량강화 프로그램, 법률 서비스, 가해자의 교정 프로그램 등을 포함하지만 이들로 한정해서는 안 된다.

**5. 남성성과 남성 역할의 재정의**: 세계YWCA는 폭력 예방 활동에 남성과 소년들의 참여를 권장한다. 여성폭력 예방 활동은, 생존자가 존엄성을 유지하며 존중 받을 수 있도록 법 집행자, 보건 전문가와 보안을 감안한 대상자 교육과 인식 제고 운동 등을 포함한다. 또한 세계YWCA는 그 과정에 남성들도 주도적으로 참여할 것을 촉구한다.

## 핵심사항

- 성 불평등이 존재하는 한 여성, 젊은 여성, 소녀들이 당하는 폭력은 끝나지 않는다.
- Post-2015 의제는 여성폭력 추방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
- 가해자가 처벌을 받지 않는 불합리한 관행을 타파하고 정부 차원의 국제적 책임 이행 보장은 상황 진전을 위한 필수 사항이다.
- 여성과 젊은 여성들이 평화구축과 분쟁 해결의 모든 과정에 참여해야 한다.

## 마치며

우리들, 다양한 환경 속의 여성들, 젊은 여성들과 소녀들은 우리 삶과 공동체에 영향을 끼치는 모든 문제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힘을 갖춘 지도자, 의사결정자, 그리고 변화의 주체로서 우리들의 권리를 명확하게 주장한다.  (번역: 한국YWCA연합회 국제운동팀)

# 여성의 눈과 마음으로 세상을 보는 청주여성영화제

글 | 김태순 (청주YWCA 프로그램국장)

청주YWCA가 주최하여 온 '청주여성영화제'가 올해로 열다섯 번째를 맞이했다.

청주여성영화제는 1997년 '여성의 눈으로 세계를 보자'를 주제로 연 서울국제여성영화제에서 아이디어를 얻고 1999년 7월 처음 개최되었다.

청주여성영화제는 여성발전기본법에 의거하여 민간 여성단체와 지자체, 여성정책부서가 협력하여 개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여성주간' 행사의 일환으로 1회부터 5회까지는 청주YWCA, 6회부터 14회까지는 청주YWCA여성종합상담소, 그리고 올해 15회부터는 청주YWCA 주최로 매년 열리고 있다.

이 영화제는 세계 여성영화를 보면서 여성 연대의 틀을 다지고 서구 중심의 페미니즘 속에서 우리 나라의 정체성과 아시아 여성의 정체성을 찾고자 국제여성영화제가 갖는 목적을 기본으로 한다. 아울러 서울국제여성영화제의 화제작들과 국내 우수한 여성영화를 청주 지역 여성들에게 소개하고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유일하게 제공함으로써 지역의 문화격차를 해소하는 역할도 한다. 또한 여성 문화운동이 취약한 청주지역에서 15회째를 맞이한 '여성영화제'가 여성문화운동으로 자리매김한다는 점에서 더욱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여성영화제를 진행하면서 적은 예산으로 인해 영화제 규모를 확대하지 못하고, 여성영화에 대한 시민들의 이질



제15회 청주여성영화제 - 감독 배우와의 대화

감으로 다양한 관객층을 확보하기 어려운 점도 있었다. 하지만 여성영화를 통해 다양한 관점에서 여성의 삶을 바라볼 수 있는 점, 시대적 흐름 속에서 여성운동의 방향을 탐색할 수 있는 점, 여성들의 이야기에 공감하고 소통하며 성평등의식을 높일 수 있는 점, 이로써 여성주의 가치가 확산되며 여성주의 문화 발전과 확산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여성영화제는 꼭 지속되어야 하며 확대 발전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러한 생각으로 청주여성영화제도 적은 예산 속에서 나름대로 다양한 모색과 시도를 하고 있다. 2009년에는 여성영화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작은여성영화제'를 중심으로 독립영화의 공동체 상영, 특정섹션과 감독과의 대화를 시도해 여성영화에 대한 친숙함을 꾀했고, 2012년은 여성주의 가치 확산과 시민들의 보다 많은 참여를 위해 여성의 삶을 담은 UCC공모전을 했다.

올해 열다섯 번째를 맞이한 청주여성영화제는 지난 10월 28일부터 29일까지 개최되었다. 이번 영화제 역시 그동안 여성영화제가 지녔던 한계를 극복해 보고자 다양한 시도를 하였다. 먼저 여성영화 저변을 확대하고자 보다 많은 시민들에게 여성영화제를 알리고 영화제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영화제 본행사 기간을 1일에서 2일로 늘렸다. 또한 기존 문화산업단지, 여성회관과 같은 공공장소에서

상영하던 것을 영화제에 대한 시민들의 접근성이 용이하도록 복합상영관인 SFX시네마에서 상영하였다.

올해 상영된 7편의 상영작은 장편 5편, 중편 1편, 단편 1편으로 예년에 비해 장편영화가 많았고, 국내작품 5편, 해외작품 2편 등 예년에 비해 국내 여성영화가 많았다. 이번 영화제 상영작은 일본군 위안부할머니의 삶을 그림책으로 담은 과정을 그린 개막작 '그리고 싶은 것', 30대 초반 신혼부부의 일상적인 삶과 일, 출산, 육아에 대한 고민을 담아 낸 '잠 못 드는 밤', 이주노동자이면서 동성애자 여성의 삶을 그린 '그레이스', 6~80년대 대중문화계 정상에서 수많은 팬 층을 구축하며 활발한 활동을 벌였지만 제도적인 뒷받침 결여로 지금은 명맥조차 이어가기 힘든 여성문화단체인 여성극 배우들의 과거 활동과 현재 삶을 담아낸 '왕자가 된 소녀들', 20대 싱글맘의 삶에서 시작되었지만 한국의 근현대사를 거치며 우리 안에 내재화 된 이분법적 사고와 다양성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회통념 속에서 소수자로 고통 받는 개인과 가족의 삶을 다룬 '마이플레이스', 캄보디아 내전을 겪으며 사랑을 다져온 50대 동성애자 커플의 삶을 담아낸 '비바람을 헤친 긴 사랑', 남북한 분단의 아픔과 상처가 가족사에 고스란히 투영되어 가족의 아픔으로 표출된 '아버지의 이메일'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루었다. 또한 올해는 특별히 '왕자가 된 소녀들' 감독 뿐 아니라 배우 김혜리 씨도 함께 초청한 '감독 배우와의 대화'를 개최함으로써 관객들의 열렬한 호응을 얻었다.

그리고 올해 처음으로 '씨네톡!'도 개최하였는데 '아버지의 이메일' 영화를 관람한 후 '우리 시대 아버지의 자화상'이란 주제로 연령대 별로 바라본 아버지의 모습, 전통적 의미와 현대적 의미의 아버지의 상에 관해서 관객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영화제 부대행사로 개막작과 관련하여 '일본군위안부할머니 문제해결을 위한 세계 1억명 서명운동과 모금활동'을 벌였고, '씨네톡!' 관련하여 '나에게 있어 아버지는?'라는 주제로 관객들의 의견을 받기도 하였다. 이 외 충북여성연대소속 단체홍보, 사회적기업과 생협, 장애인보호작업



개막작 <그리고 싶은 것>




<왕자가 된 소녀들>

장들이 친환경안전한 먹을거리를 홍보, 판매하였다.

이 밖에 영화제 본행사가 열리는 기간이 아닌 6월부터 10월에는 '찾아가는 여성영화상영회'를 실시하였다. 특히 '찾아가는 여성영화상영회'는 시민들에게 영화제를 알리는 것 외에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기 힘든 문화소외계층인 어르신, 청소년, 성인들에게 직접 찾아가서 영화를 상영하고 영화평론가와 함께 영화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하겠다.

이와 함께 '여성친화UCC공모전'도 실시하였다. 올해는 청소년, 대학생, 성인 등 다양한 계층에서 휴대폰, 디지털 카메라, 비디오카메라를 이용하여 여성주의 작품을 제작하였는데 총 13편이 응모하여 주제성, 예술성, 창의성, 예술성, 완성도에 의거한 심사를 거쳐 금상(공부하는 줌마들), 은상(Cosmetican), 동상(저를 믿고 기다려주세요), 특별상(그 순간) 등 4개 작품에 대해 시상하였다.

이렇듯 성평등의식과 여성주의 가치 확산을 위해 보다 많은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꾀했던 15회 청주여성영화제의 다양한 시도들과 노력들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와 제안을 반영하여 한층 더 발전하는 2014년 16회 여성영화제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 

# 아이들이 오늘의 주인공이다

글 | 정경미 (부산강서어린이집 원장)

기혼 여성들의 사회·경제 활동의 참여가 증가하면서 자녀 양육이 국가적·사회적 책임이라는 보육의 공적 책무성이 강조되고 있다. 국가에서는 보편적 복지를 내걸고 '걱정 없이 아이를 낳고 키우는 사회 환경 조성'이라는 목표로 국가가 백 퍼센트 책임지는 보육지원의 틀을 확대해 가고 있다. 이에 2013년 3월부터 만0~5세 전 계층 보육 양육 무상지원, 만3~5세 누리과정 운영을 본격 시행하면서 보육정책의 현황과 방향 등에 대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또한 보육의 질 향상과 공공성 확보, 보육 정책 과제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지난 6월 'YWCA 어린이집 연구모임'에서 각 어린이집의 현안을 공유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를 의논하면서 '우리 YWCA 어린이집은 국공립, 법인, 민간 등 다양한 유형으로 전국에 25곳과 1곳의 유아체능단으로 운영되고, 분명한 목적과 공공성을 가진 기관으로서 편견이나 치우침 없이 현장의 고민과 과제를 보육 정책으로 제안할 수 있다'는 의견을 모으게 되었다. 이어 10월 1일 YWCA 어린이집 정책워크숍을 열고 YWCA 어린이집의 보육정책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앞으로 해결해야 할 정책 과제는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YWCA 어린이집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고민하고 소통하는 자리를 가졌다.

명진숙 국장(연합회 운동2국)의 사회로 유성희 연합회 사무총장의 환영사, 주제발표, 발제, 그룹별 토론이 이어졌다. 서문희 선임연구위원(육아정책연구소)의 주제발표 '보육정책의 현황과 과제', 박효정 간사(YWCA 복지사업

단)의 'YWCA 어린이집 운영현황' 최영숙 원장(성남 Y 어린이집) '보육공공성 강화와 부모교육', 이영주 주임교사(부산 Y 부설 어린이집)의 '보육의 질 향상과 교사 근무여건의 관계성', 박미영 원장(진주 Y 근로자가족복지회관 어린이집)의 '보육프로그램 특성과 방향' 김귀자 원장(마산 Y 어린이집) 원장의 '보육사업 정책 및 안내개정의 건'을 주제로 한 발제가 있었다.

서문희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보육현장에서 발생한 문제로 시장에 기반한 개인 투자 위주의 공급구조로 공보육, 무상보육 실현에 한계점을 꼽았다. 또한 모든 아동에게 적용되는 12시간 획일화된 어린이집 이용시간, 보육교사에게 적용되는 높은 노동 강도와 낮은 급여, 소규모 어린이집이 대다수인 현 상황에서 지역사회와의 관심이 미치지 못하는 점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 이러한 문제의 대책으로 어린이집 시설 설치인가의 기준 강화, 다양한 보육수요 반영과 부모의 책임성, 보육교사 근무여건과 전문성 강화, 운영의 투명성 제고와 책임성, 환경의 안전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어 주제 발제가 이어졌는데, 25개 YWCA 어린이집과 1개의 유아체능단의 운영 현황을 살펴본 박효정 간사는 YWCA 어린이집이 일하는 여성들의 육아, 보육문제 해결에 동참하고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다양한 방법과 내용으로 책임 있는 보육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공립, 법인어린이집은 1990년대에 설립된 곳이 많아 시설설비개선이 필요하고, 보육교직원 운영과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YWCA 어린이집만의 차별성으로 프로그램 내의 기독교성, 어린이집의 공공성, YWCA에 대한 신뢰성, YWCA 목적을 담은 운동성이라고 했다.

최영숙 원장은 '보육공공성 강화와 부모교육'에 대해 말하며 앞으로 보육정책은 수요자, 즉 모든 영유아를 중심으로 하는 패러다임의 전환을 강조했다. 보육서비스가 단순히 육아를 담당하기 어려운 가정을 위한 보완적 서비스가 아니라, 사회를 유지·발전시켜 나가고 어린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하는 필수불가결한 서비스로 보육 공공성을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 '보육의 질 향상과 교사 근무여건의 관계성'을 주제로 한 발제에서 이영주 주임교사는 무엇보다 교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보육의 공공성이 강조되면서 양질의 보육에 대한 요구도 늘어났는데, 교사는 보육의 질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그런데 보육교사들이 최상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때는 근무조건과 처우에서 만족을 느낄 때다. 따라서 보육교사의 학력과 자격급수가 고려된 보수체계 마련, 호봉승급제 실시, 초과근무수당의 지급규정 준수 등 보육교직원을 위한 근무여건과 처우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보육프로그램 특성과 방향 제시'에서 박미영 원장은 YWCA 어린이집이 지속적으로 지향해야 할 것으로 YWCA의 목적이 담긴 보육과정을 강조했다. '정의·평화·창조 질서의 보전' 등에 관한 구체적인 교재와 교안이 정리되고, 교직원들의 재교육을 위한 지침이 마련되어야 한다. '보건복지부 보육사업 안내서' 개정의 건에서 김귀자 원장은 초과보육 금지에 따른 운영비 지원, 장기근

속자 근무에 대한 지원, 보육교사의 유연성있는 근무제도 도입, 급식관련 장부, 생활기록부 등 서류의 간소화에 대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이날 주제발표와 발제에서 나온 주제를 토대로 그룹별 토론을 했다. YWCA의 가치를 잘 포합하는 YWCA 어린이집의 브랜드 만들기와 YWCA의 목적에 맞게 기독교성과 '정의·평화·생명' 사랑이 담긴 노래나 로고, 현판 등을 제작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공통적으로 '정의·평화·생명'을 실천하는 YWCA 어린이집 교육과정과 프로그램 개발로 YWCA 어린이들이 전국 어느 곳에 있든지 함께 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교사의 질 향상과 좋은 교사의 경력단절을 막기 위한 우수한 교사교육과 근무환경 개선, 복리후생을 해결해야 할 과제로 제시했다.

제시된 과제에 대한 해결은 기관이나 국가의 노력만으로는 어렵다. 정책적인 노력, 사회적인 도움, 그리고 부모의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아이-부모-교사가 더불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YWCA 어린이집이 진지하게 참여하여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이날 워크숍은 진지한 발제와 열띤 토론으로 보육의 나아가야 할 방향을 찾는 유익한 시간이었다. 또한 오늘의 주인공이 되어야 할 우리의 아이들을 함께 키워갈 방법을 찾기 위한 소통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느꼈다. 앞으로도 이런 자리가 지속적으로 마련되어 우리 YWCA를 통해 보육 현장의 소리가 전달되는 통로가 되길 기대한다. ✨

# 먹거리는 생명이다

글 | 이윤속 (연합회 생명비전연구소 부장)

## 넘치는 먹거리, 불안한 식탁

도처에 널려 있는 맛집, 어느 새 군침이 돌게 만드는 먹거리 광고들, 우리의 눈과 입맛을 사로잡는 음식이 어디에나 넘쳐나는 시대를 살고 있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는 이걸 과연 안심하고 먹어도 될지 일상적으로 불안에 떨며 살고 있다.

수많은 종류의 식품첨가물이 함유된 가공식품, 항생제와 성장촉진제로 길러진 고기들, 농약과 제초제로 오염된 농산물들 그리고 최근에 우리를 지속적으로 불안하게 하는 방사능 오염 생선들... 정말 맘 놓고 밥숟가락을 들지 못할 정도로 먹거리 오염의 심각성은 많은 사람들이 피부로 실감하는 일이 되었다.

그런데 그 실상이 사실 제대로 알려지지도 않았고 그 위험성이 아직 눈에 띄게 나타나지도 않았지만 마치 시한폭탄과 같이 그 잠재된 위험을 가지고 우리의 식탁을 점령한 것들이 있다. 그 단어만큼은 그리 낯설지 않은 GMO(Genetically Modified Organism)식품, 즉 유전자조작 식품이 바로 그것이다.

## 실상이 제대로 파악되지 못하고 있는 GMO 식품

GMO라는 것은 어느 정도 알려진 대로 누대로 농사를 지어 온 사람들이 옛부터 해온 육종이나 농업진흥청 등에서 식량증식과 고수익을 목적으로 해온 품종개량과는 다른 차원으로서, 어떤 생물의 유전자 중 유용한 성질 예를 들어 병충해, 살충제, 제초제 등에 강한 성질이나 저장에 유리한 성질 등을 취해 생물체에 삽입하여 새로운 품종을 만드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종의 벽을 뛰어넘어 예컨대 물고기 유전자를 토마토에 삽입하는 등 자연계에 존재하지

않는 전혀 새로운 생물체가 만들어진다. 1994년 미국 칼젠사가 시간이 지나도 무르지 않는 GMO 토마토를 최초로 상업화한 후 지금까지 수많은 종류의 GMO가 만들어졌다. 1996년 미국 몬산토사가 개발한 'Round-Up Ready'는 독한 제초제를 뿌려도 끄떡없는 콩이고, 스위스 노바티스사가 개발한 'Bt옥수수'는 강력한 병충해에도 살아남는 대표적 작물로서 초국적 기업들에 의해 제초제, 농약과 함께 세트로 판매되고 재배되는 대표적 GMO 농산물들이다.

최근에 미국에서는 반딧불이같이 빛을 내는 생물에서 발광 유전자를 추출해 식물 종자에 삽입하여 멋진 길거리 야경 효과를 내는 '빛나는 나무'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발광 식물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시행하고 있다 한다. 이제 GMO는 농산물의 범주를 넘어 특정목적 위해 변형된 꽃나무의 모습으로 우리 일상으로 들어오고 있다.

하지만 GMO가 어떤 과정과 어떤 형태로 우리의 먹거리가 되고 있는지, 어떻게 우리의 일상 속에 들어와 있는지 제대로 알려지고 있지 않다. 어쨌든 우리나라에선 GMO를 작물로서 금지하고 있는 것도 그 한 이유이다. 그러나 식량자급률이 22% 안팎이고 많은 농산물을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에서 GMO의 유통 실상은 면밀히 주목하고 파악하지 않으면 안되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지 않을 수 없다.

GMO 작물들은 1996년 상업화 이후 17년 만에 전세계적으로 재배면적이 1백 배나 증가하였으며, 지난해 GMO 작물 재배면적은 우리나라 농경지의 100배가 넘는 1억 7000만ha나 된다고 한다. 특히 우리나라의 주요 곡물수입국인 미국은 자국의 주식인 밀을 제외하고 옥수수의 88%, 대두의 93%를 GMO작물로 재배하고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GMO 농산물과 이를 원료로 하고 있는 가공식품 수입량은 해마다 급증하고 있는데 최근의 한 시민단체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25개 품목 1만3000t의 GMO 가공식품이 완제품 등 가공 상태로 수입됐고 이는 전년보다도 9%나 증가한 것이라 한다. 하지만 사실 슈퍼마켓에 가서 GMO가 표시된 제품을 눈썰고 찾아봐도 찾기가 쉽지 않다. 현재 우리나라는 GMO성분이 3%미만 섞인 경우와 최종제품에서 유전자조작 성분이 검출되지 않는 가공식품, 주요 원재료 상위 5가지 내에 GMO 성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표시가 면제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GMO를 많이 수입하는 대기업 가공식품회사들은 이를 이용하여 원재료 5순위 이내에 GMO가 포함되지 않게 사용하거나, 식용유나 간장 등 형태의 식품에 GMO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현행 GMO 표시제는 있으나 마나한 무력한 표시제라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더군다나 식약처가 GMO수입현황에 대한 자료를 일체 공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GMO가 어떤 과정을 통해 얼마나 누구에 의해 수입되고 사용되는지 그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기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이뿐 아니다. 대다수를 옥수수사료 등 수입사료에 의존해 생산되는 축산물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할 때 GMO가 우리 식탁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보다 더 광범위하고 심각할 수 있다. 알게 모르게 우리의 유전적으로 조작된 물질들이 소리없이 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우리의 생명을 지탱해주는 일상의 먹거리에 대해 제대로 아는 것이 별로 없이 무력한 때가 과연 이전에 있었더라 말인가?

## 상품에서 생명으로, GMO 감시 강화를

GMO 지지자들은 GMO가 생산되고 유통된 지 20년 가까이 흘렀지만 GMO에 의한 어떤 위험도 보고되지 않았고 오히려 인류의 식량문제 해결에 기여한 바 크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사실 여러 가지 경로로 GMO의 위험성이 보고되고 있다. 1998년 영국에서 GMO식품을 먹인 생쥐 실험에서 생쥐의 심장이 작아지고 뇌가 수축이 되는 현상이 나타났으며, GMO 꽃가루로 인한 나비와 벌들의 집단

실종기사가 보도되고, 일본에서는 GMO식품이 아이들의 영구치가 아예 나지 않는 현상의 원인이라는 연구결과가 발표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GMO를 둘러싼 문제에서 핵심적으로 보아야 할 것은 단순히 GMO의 안전성이 아니라, GMO를 생산하고 유통하고 소비하는 구조이다. GMO는 독점 특허를 가진 종자와 농약과 비료 등이 몬산토 등 초국적 기업들에 이익을 위해 주도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엄청난 자연생태계 파괴를 가져오고 가난한 농민들의 삶을 파괴하고 있다. 실제 인도에서는 몬산토의 GMO작물인 Bt면화 재배가 강요됨으로써 고비용을 감당하지 못한 농민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잇달았다. 전통적인 방식으로 생태적 순환을 이루며 살고 있던 농민들에게 많은 농약과 제초제와 특허를 받은 GMO면화 종자를 구입하지 않으면 안되도록 하는 일들이 다국적 농업 자본의 이익을 위해 강요되고, 어떤 위험이 있을지 모르는 데도 오로지 돈을 위해 유전적으로 조작된 단일작물이 생태계를 지배하는 식량구조 시스템이 GMO의 배후에 존재하고 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핵의 위험'과 마찬가지로 어떤 결과가 올지 다 알지 못하면서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위험을 감행하는 인간의 오만과 이기심이 작동한다. 우리 몸에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주시던 것 외에 인류가 경험해보지 못한 잠재적 독극물을 집어넣는 일을 언제까지 용인하고 있을 것인가. 최소한 유럽연합처럼 GMO가 원료에 포함된 식품은 DNA·외래단백질 잔류 여부나 원료비율 순위에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표시하고 2차, 3차 가공을 거친 제품도 '이력추적제'를 통해 GMO 농산물 포함 여부를 표기하도록 실질적인 GMO 표시제를 실시해야 한다. 먹거리의 대부분을 외국산 농산물에 의존하는 우리들에게 GMO의 실상을 파헤치고 그것이 가할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일은 점점 더 시급하고 절박한 일이 되고 있다. 먹거리는 단순한 상품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이며 먹거리를 기르는 일은 돈을 넘어 다른 생명과 더불어 사는 일이다. 

# 765Kv 밀양 송전탑 건설 중단을 촉구하는 한국YWCA 성명서

한국YWCA는 765Kv 초고압 송전탑 건설 강행으로 밀양지역에서 물리적인 충돌이 발생하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부상을 입는 등 현지 주민들의 건강과 생명이 위협받고 있음에 심히 유감을 표한다.

한전과 정부는 공사를 밀어붙이는 이유로 '전력대란 대비를 위한 불가피하고 시급한 사안' 이라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핵심부품 테스트 성적 위조 등 비리 문제로 인해 그 가동 시점과 안전대책이 불투명한 신고리핵발전소 3호기에서 생산되는 전기 수송이 과연 시급한 일이며, 엄청난 공권력을 동원하면서까지 송전탑 건설을 강행할 이유와 명분이 되는지 심각하게 묻지 않을 수 없다.

한국YWCA는 765Kv 초고압 밀양 송전탑 건설 강행은 다음의 측면에서 즉각 중단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 첫째,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과 건강권을 침해하고 이에 저항하는 주민들의 인권과 생명을 위협하면서까지 초고압 송전탑 건설을 강행하는 것은 국책사업으로서 시급한 사안이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걸린 '생명위협'의 문제이다.
- 둘째, 비리 문제로 얼룩진 핵발전소에서 만들어진 전기를 나르기 위해 건설하는 송전탑 문제는 밀양지역 주민만의 문제가 아니라, 부실 핵발전소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원전사고에 국민을 무방비로 노출시킴으로써 전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기본권 침해'의 문제이다.
- 셋째, 대도시 전력 수요를 위해 한 지역을 희생양으로 만드는 것은 에너지 사용을 둘러싼 '부정의의 문제'이다.
- 넷째, 국민들을 위하고 국익을 위하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국민적 공론화와 합의를 통해 결정하지 않고 밀실행정과 밀어붙이기식 국책사업 관행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민주주의 역행'의 문제이다.

이에, 한국YWCA는 765Kv 초고압 밀양송전탑 건설 공사 강행과 더불어 발생하고 있는 주민들의 인권과 생명권의 심각한 위협 상황을 깊이 우려하면서 한전, 한수원과 정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하나 비리 문제로 얼룩진 신고리핵발전소 3·4호기 완공이 불투명해진 이상, 밀양송전탑 건설을 즉각 중단하라.

핵심 부품 테스트 성적을 위조했음이 드러난 신고리핵발전소 3·4호기 제어케이블 성능을 재검증한 결과 불합격 판정이 나오는 등, 신고리 3호기는 시급히 가동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며, 또 가동해서도 안된다는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따라서 신고리 핵발전소 3호기에서 생산된 전기를 송전하기 위해 공사를 강행해야 한다는 것은 더 이상 명분이 되지 못한다. 그런데도 산업자원부는 밀양송전탑 건설을 강행하겠다는 방침을 바꾸지 않고 있다. 정부는 신고리 핵발전소가

등을 이유로 강행하는 송전탑건설을 즉각 중단하고, 핵발전소 비리 책임을 명확히 밝히는 일과 방사능의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안전대책 수립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라.

## 하나 밀양송전탑 문제를 공론화하는 사회적 검증기구를 구성하고 주민들과 대화에 나서라.

지난 2012년 폭력적이고 비민주적인 밀양송전탑 건설에 항의해 한 노인이 분신을 하며 저항하기 전까지 8년 이상 계속되어온 밀양의 송전탑 문제는 그 폭력성과 비민주성이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다. 그동안 한전과 정부는 밀양 주민들의 의사와 사업 타당성을 공개적으로 확인하고 검증하는 민주주의적 노력을 제대로 기울이지 않은 채 군사독재 시절의 밀실행정과 밀어붙이기식 국책사업 관행을 되풀이해왔다.

정부와 한전은 전 세계 인권단체들이 주목하며 우려를 표시할 정도로 폭력적으로 강행되는 송전탑 건설을 중단하고 하루빨리 송전탑 공사의 필요성과 타당성의 검증, 피해 보상을 비롯한 주민들의 요구, 송전 문제를 둘러싼 기술적 대안 등을 공론화하여 국민의 여론을 수렴하고, 사회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기구를 구성하여 주민들과 대화에 나서라.

## 하나 핵발전소 의존적이며 공급위주의 에너지 정책에서 적절한 수요관리가 중심이 되는 에너지 정책으로 전환하라.

우리나라 전력소비량은 일본, 영국, 독일 등 주요 선진국의 1인당 전력소비량보다도 높은 상황이다. 이는 전력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만 전망하고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 핵발전소에 의존하며 전력낭비를 조장하는 공급위주의 에너지 정책에서 기인한다. 한전과 정부가 밀양 송전탑건설의 이유로 내세우고 있는 전력대란은 적절한 수급관리를 통해 얼마든지 예방과 관리가 가능하다고 본다. 따라서 정부는 위험하고 불안한 핵발전소에 의존하는 정책에서 벗어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에너지 관리 정책을 수립하는 데 힘을 기울여라.

대부분 고령인 밀양의 주민들이 오랫동안 공권력에 대해 힘겨운 저항을 하면서 날이 갈수록 건강과 생명이 위태로워지고 있고, 그들의 저항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본권의 침해는 더욱더 심각해지고 있다.

한국YWCA는 생명을 지키고자 하는 노력이 존중받지 못하고, 민주적 절차와 의지를 훼손하는 밀양송전탑 건설에 명백히 반대하며, 사회적 합의를 통해 송전탑 건설의 대안을 결정할 때까지 공사를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더 나아가 핵과 방사능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안전대책을 수립하고 핵발전소의 비리 문제를 밝히는 일에 책임을 다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2013년 10월 18일  
사단법인 한국YWCA연합회 회원 일동

# 문화교류로 통일의 물꼬를 트길

글 | 강동완 (동아대 정치외교학과)



북한에서 유통된 초기 한류 드라마 <천국의 계단>(출처\_노컷뉴스)

**반** 세기가 넘는 분단의 시간 속에서 남북한은 체제 갈등뿐만 아니라 '사람'에 대한 두려움, 거부감, 중요감 등이 내면화되고 있다. 한반도 통일은 남북한 주민들이 함께 살아가는 것으로, 정치경제 통합과 함께 문화, 인식, 정서적 통합이 중요한 과제이다. 남북한 주민들이 상호 함께 살아가야 할 대상으로서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정서적 격차를 줄이기 위한 문화적 접근에 기반을 둔 상호이해 증진이 필요하다. 남북한 통일이 정치, 경제적 부분의 거대담론이 아니라 실제 우리 생활 속의 일부라는 점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남북한 주민들의 생활모습을 체험하고 같은 문화를 공유하고 있다는 인식적 기반을 토대로 동질감을 회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한반도 통일 과정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통합과 문화적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는 인식에서 남한 주민들이 그동안 접해 보지 못한 새롭게 변화되는 북한의 사회상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평소 분단이데올로기에 갇힌 고정관념의 왜곡된 북한과 북한주민, 탈북민이 아닌 우리 안에 함께 호흡하고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 또 앞으로 살아갈 그들에 대한 공감적 이해가 필요하다.

북한의 당면과제는 결국 경제난의 해결이며 이는 경제난 피로증을 겪는 북한 인민들에게 정권이 해결해 주어야 할 최대의 이슈라 할 수 있다. 집권 2년차를 맞는 김정은의 초기 전략은 문화, 체육 분야의 변화와 가시적 성과에 집중되었다. 이제 경제난 해결을 위해 국제, 대남관계 등에서 변화의 양상을 보이고 있는 만큼 경제협력과 지원을 통한 북한변화를 추구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최대 화두인 경제난이 해결되지 않을 때 북한 주민들의 정권에 대한 불만과 변화에 대한 욕구가 어디로 분출할지에 대한 세밀한 준비가 필요하다. 아울러 현재 남북관계의 일관된 원칙을 고수하면서도 하나의 돌파구를 마련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이에 문화적 접근을 통한 남북한 연계 고리를 만들 필요가 있다.

물론 향후 남북한 교류협력과 대북지원은 단순히 과거로의 회귀 방식이 아닌 새로운 틀 안에서 재정립되어야 함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새로운 틀을 구성하기 위한 접촉점으로서 상호 정치적 부담이 없는 사회문화적 접근이 필요하다.

한반도 통일 과정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통합과 문화적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는 인식에서 남한 주민들이 그동안 접해 보지 못한 새롭게 변화되는 북한의 사회상을 이해해야 한다. 통일의 당위성을 한민족이나 경제적 성과 부분만으로 설명하는 기존 방식을 벗어나, 문화적 공감대와 정서적 일치감을 통해 통일에 대한 희망과 지지를 고양시킬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최근 북한 지역에 확산되고 있는 남한 영화나 드라마 시청은 남북한 주민들의 연결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북한 주민들의 남한 영상물을 통한 남북한 사람간의 '같은 추억' 만들기 과정은 남북한 '사람'의 '공감대' 형성과 거리좁히기로 작용하고 있다.

영화, 드라마, 예능프로그램, 가요 등 대중문화는 대중들의 전 삶을 포괄하고 있다고 해도 크게 과장된 말은 아니다. 정서와 가치관, 일상생활을 망라하고 있을 뿐 아니라 직·간접적으로 정치, 경제상황 등을 표현하고 있기도 하다. '포괄성'을 특징으로 하는 종합예술로서의 대중문화가 북한 내부에 유통되고 있는 현상도 주목해야 한다. 이는 반세기 이상 분단의 저 편에 가려진 '아랫동네(남한)' 사람들의 모습을 '윗동네(북한)' 사람들이 속속들이 마주할 수 있는 만남의 장이 마련되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 주민들의 남한 영상물 시청을 통한 남북한 사람간의 '같은 추억' 만들기 과정은 남북한 사람 간 '공감대' 형성과 거리좁히기 과정이 될 수 있다는 기대를 갖게 한다.

북한 지역에서 확산되고 있는 한류는 북한 주민들의 남한 문화 및 생활에 대한 간접경험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북한 주민들의 의식 변화는 물론 나아가 향후 남북한 주민들의 동질성 확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다. 외부정보와 문화의 유입을 통해 북한주민들이 정권의 실체에 대한 정보를 인식함으로써 사회변화를 추동할 수 있는 주체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활동을 전개해야 한다.

한편, 공식적 차원의 남북 당국간 사회문화협력의 지속적 추진도 이루어져야 한다. 이전의 남북한 사회문화 교류는 지속적 사업으로 추진되기보다, 일회성·이벤트성 행사로 계획됨에 따라 실질적인 교류성과를 달성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특히, 인적교류는 주로 남측이 주최하는 국제경기에 북측이 대규모 선수단과 응원단을 파견하는 형태로 추진되었다. 남북 교류·협력사업이 주로 경제교류사업, 인도적 지원 위주로 이루어졌다면, 향후 바람직한 교류협력 방식은 상호 인적 교류에 기반을 둔 사회문화 분야의 사업을 확대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정치적 색채를 배제하고 남북주민 간 실질적인 접촉을 통해 상호 이질감을 해소하여, 사실상의 통일을 만들어 갈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문화 교류협력은 중요하다. 남북관계의 새로운 틀을 정립할 수 있도록 교류협력사업의 새로운 모델을 통한 사람과 문화간 교류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해 본다.

# 콩 한쪽 나누는 마음으로 함께 합니다



행복한교회는 홍성읍에 위치한 58년의 역사를 가진 농촌의 작은 교회다. 본인을 교회의 섬김으로 소개하시는 이민식 목사님께서 어느 날 본회에 직접 연락을 주셨다. 인터넷을 통해 접했노라며 북한어린이돕기운동에 기여이 참여 의사를 밝히셨고 2회에 걸쳐 현금을 전달해주셨다. 행복한교회의 나눔 이야기는, 작은 것이 아름답다는 진리를 깨닫게 해준다. 연합회 평화나눔팀에서 이민식 홍성 행복한교회 목사와 인터뷰를 했다.

**Q 한국YWCA연합회에 직접 연락을 주셔서 북한어린이 돕기 운동에 참여해주셨는데 그 계기에 대해 말씀해주시겠어요?**

나눔의 삶은 주님의 뜻을 따르는 일입니다. 작은 나눔이지만 나눔수록 커지는 기쁨은 삶의 활력소입니다. 북한어린이돕기에 동참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먼저는 고인이 되신 저의 아버지 고향이 평안북도 영변입니다. 홀로 십대에 피난 오셔서 명절 때마다 가족을 그리워하시다 돌아가신 아버지의 고향이기에 북녘 땅은 제 마음 속에 늘 그려지는 아련한 옛 동산과도 같습니다. 둘째는 제 자신이 어려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자라났기 때문입니다. 막 피어나는 여린 순과 같은 시절, 메말라 신음하는 저에게 베풀어진 따뜻한 손길들이 오늘의 저를 있게 했습니다. 어린이는 소망의 존재입니다. 굶주림 속에 지쳐있는 북한 어린이들에게 나의 작은 나눔이 큰 기적의 씨앗이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Q 북한을 돕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살아야 하는 우리는 마땅히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합니다. '북한' 과 '남한' 이 아니라 우리는 이웃이고 형제입니다. 미래지향적이고 평화적 차원에서 북한을 돕는 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감당해야 할 소중한 몫이라 생각합니다. 반드시 심고 거두는 진리가 한반도의 역사속에 열매로 나타나리라 확신합니다.

**Q 나눔과 평화에 대해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어떤 생각으로 실천해야 할까요?**

나는 음악을 사랑합니다. 특히 솔로보다 합창을, 독주보다 합주를 더 좋아합니다. 아름다운 '하모니' 의 매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함께' 는 생명의 통로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사는 세상은 엄청난 에너지라 생각합니다. '너와 나' 그리고 '우리' 는 운명 공동체라는 생각으로 나눔과 평화의 몸짓은 계속되어야 될 것입니다.

**Q 북한어린이돕기 외에 지역에서 어떤 나눔의 활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고령화 시대에 살고 있는 오늘의 현실을 직시해볼 때 교회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소외되고 무시되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나눔과 돌봄의 사역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Q 홍성 행복한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소개해 주시겠어요?**

우리교회는 소개할 게 별로 없습니다. 58년 된 작은 농촌 교회입니다. 식구는 30여 명이고 7,80대 노인이 대부분입니다. 큰 힘은 없지만 말씀대로 살기 위해 모두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실 자립도 어려운 교회에서 나눔을 돕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만 우리 모든 식구들은 콩 한쪽 나누는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의 빛을 갠아가려 합니다. 감사합니다.

# 서울Y '길 위의 평화학교' 평화감수성 UP

글 | 김명숙 (YWCA PR기자,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4학년)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을 넘어, 남한과 탈북민이 함께 통일을 준비하는 사회통합 프로그램인 길 위의 평화학교는 서울Y, 부산Y 새터민지원센터, 청주Y가 지역별로 실시한다. 남한과 탈북 청소년과 대학생, 청년, 젊은 여성 그룹을 대상으로 남과 북의 문화와 서로를 이해하며, 평화감수성을 향상시키고, 또래가 가지고 있는 고민들을 나누며 대안을 찾아가는 프로그램이다. YWCA PR 기자단은 10월 19일 서울YWCA 길 위의 평화학교를 찾아갔다. 우리가 취재한 서울Y 길 위의 평화학교는 남과 북의 서로 다른 환경에서 나서 자란 청소년들의 서로에 대한 이해와 소통, 나아가 평화의 디딤돌을 마련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평화프로그램이라고 볼 수 있다. 이날 모인 남과 북의 청소년들이 한창 이야기꽃을 피우고 있었다. 이날 행사는 '평등의식 & 평화감수성 UP' 이라는 주제로 북한출

신청소년들과 남한의 청소년들이 서로 소통하며 마음을 여는 시간이었다. 서울Y 프로그램은 남북 청소년들의 만남을 통해 서로의 상처치유, 북한 청소년을 위한 적응훈련, 리더십 키우기, 평화인식심어주기를 목적으로 한다. 이날은 이권명희 선생님께서 게임을 통해 평화감수성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셨다.

남과 북의 서로 얼굴도 모르는 청소년들이 서로가 서로의 눈을 맞추고 서로의 손을 마주잡고 무릎을 마주대고 여러 가지 다양한 스킨십 놀이를 통해 믿음을 주고 타인을 알아가고 또 자신을 알아가는 과정을 학습할 수 있다는 게 참으로 큰 의의를 부여하는 것 같았다.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밝은 미소를 지으며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평화라는 게 별게 아니네, 이런 게 바로 평화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잠시 해보게 했다. 이 순간만은 누구도 아픔을 생각하지 않는다. 나도 그 시간동안이나마 잠시 나의 모든 근심거리를 내려놓고 행복함과 평화로움을 마음껏 만끽할 수 있었던 참으로 의미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다. 평화는 결코 쉽게 다가오지 않는다. 타인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나와 내가 아닌 '우리' 의 폭이 점점 넓어질 때만이 평화는 점점 우리를 향해 가까이 다가온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 북한어린이돕기 기부에 참여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013. 10. 1 ~ 10. 31 기준)

CMS 기부 (10월 1일 ~ 10월 31일)	국승훈, 고세영, 고은희, 곽상준, 곽지영, 김가혜, 김기동, 김병호, 김영자, 김윤환, 김은경, 김재연, 김진용, 문미란, 명진숙, 박진화, 박효정, 배정미, 백정미, 송록희, 송윤경, 신인숙, 심명자, 오시창, 원영희, 유도희, 유성희, 윤수정, 이남희, 이명혜, 이순덕, 이슬이, 이윤숙, 이주영, 이형자, 이혜련, 임강숙, 임진영, 정동신, 정서연, 조영미, 조영한, 조은영, 조은선, 조은희, 진인식, 최수산나, 최원진, 최윤영, 최지혜, 최형선, 하은경, 한송이, 한영수, 홍기자, 황정아, 황홍백
개인기부 (월계좌이체기부, 기념기부등)	김정화, 이영미, 전인선, 최숙자, 최혜실
협력교회	기쁜소식교회, 우이제일교회, 서초신동교회, 성광교회, 성남동부교회 주일학교, 한양대학교 여선교회
기관 및 단체	마포구청 여성교회, 원타임편의점(박미선)
회원YWCA, 부속시설	대전Y
교육 및 모임	기타(무명)

# 비움과 채움이 균형을 이루는 돌봄 세상을 꿈꾸며

글 | 김해경 (부천YWCA 부장)

한국YWCA가 전개하는 '돌봄정의'는 '돌봄'이 독립된 개체로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공동체적 서비스라는 인식확대는 물론 돌봄노동 종사자들이 스스로의 권리를 인식하고, 사회가 이들의 권리존중을 위해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사회를 꿈꾸는 운동이다. 연합회는 돌봄회원공동체를 조직하고 관리하는 회원YWCA 직업훈련담당 실무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돌봄이라는 단어가 주는 따뜻함 속에는 한 쪽은 채워지지 못한 쪽은 비워 내야하는 아련함이 담겨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는 말씀에 순종한 한 아이는 비워야 했고, 그 비움으로 인하여 온 균중이 채워지는 '오병이어'의 따뜻함을 경험하였다.

오랜 기간 돌봄 실무자로 일하면서 돌봄서비스 이용자와 돌보미 모두를 위한 상호호혜의 가치 속에서 노동의 가치가 인정되는 조직을 꿈꿔왔다.

이번 워크숍은 오랜 실무기간 동안 소진된 허기를 채워주고 또다른 비전을 품게 만드는 기회가 되었다.

## 새로운 공동체 모형 개발

먼저, 이번 워크숍은 통하여 돌봄노동과 돌봄사업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절실히 깨닫는 기회가 되었다. 우리사회는 급속도로 돌봄의 결핍과 위기 속으로 들어가고 있다. 가족구성원의 변화, 사회로 진출하는 여성, 이혼증가, 등으로 돌봄의 손길이 가족의 책임에서 사회적 책임으로 옮겨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공공성을 확보하면서 효율성을 높이는 돌봄사업의 활성화는 국가와 함께 단연 YWCA가 선구자의 마음으로 이끌어 가야하는 과제인 것 같다. 돌봄 노동의 가치와 돌봄 노동자의 직업인으

로 인정받기 위한 고민을 하던 중 시혜적인 사업으로 인식되는 무료직업소개사업의 문제점이 대두되었다. 새로운 대안과 진일보한 돌봄 사업의 전환이 절실할 때에 부천YWCA는 협동조합을 구현하는 시범YWCA로 선정되었다.

YWCA의 협동조합 운동은 돌봄회원들 스스로 권리를 인식하고, 지역에 필요한 '물품'이나 '서비스'를 YWCA의 정체성을 담아 사업화하고, 출자와 경영, 노동 등이 고용되지 않고 스스로 일하는 방식의 모델을 말한다.

이제까지 한국에서는 드문 워커즈 콜렉티브 방식의 공동체 운영이라 온 몸을 저리게 하는 부담을 주지만, 부천YWCA가 앞서 갈 뿐 52개 YWCA 모두 십시일반 짐을 나누어지면서 아장아장 함께 걷는 걸음마이기에 소망으로 품게 되었다.

## 돌봄회원의 주체화

이번 워크숍 일정도 뻘뻘하게 이어졌다. 첫 번째 '돌봄노동과 돌봄노동의 가치' (문경란 / 서울시인권위원장)는 돌봄노동과 임금노동을 비교해보고, 돌봄의 결핍 속에서 대안적 돌봄 공급 체계의 부재를 공감하였다. 그래도 여전히 여성과 가족의 책임으로 던져진 돌봄 영역에 국가가



참가자 단체 촬영



왼쪽부터 문경란, 최순영, 오경혜, 최형선, 표대중 선생

왜 돌봄을 지원해야하는가? 돌봄 사회로의 패러다임의 전환이 시급하다는 인식을 갖게 되었다.

두번째 '돌봄 산업 현황과 전망' (윤정향 /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은 돌봄 산업의 개념과 범위, 현황, 노동시장의 실태를 공유하면서 돌봄 서비스의 공공화와 YWCA 돌봄 인력의 역할에 대한 강의로 진행되었다.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사회서비스산업 기반마련과 일자리 창출의 선도적 산업으로서의 돌봄 사업의 전망을 엿볼 수 있었다.

세 번째 '협동조합의 정의와 역사' (최순영 / 전 국회의원)는 협동조합의 역사와 왜 협동조합을 해야 하는지 당위성을, 네 번째, '무료직업소개사업 및 ILO 가사노동자 협약의 이해' (표대중 / 노무법인 길 노무사)는 가사노동자의 법제도화의 세계적 추세와 핵심쟁점이 돌봄노동에 대한 사회적인식과 가치함의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었다.

연합회 돌봄과살림팀 위원으로 구성된 탄탄하고 실력 있는 강사들의 강의는 돌봄 실무자의 의식을 깨우고 성장토록 돕는 귀중한 시간이 되었다.


특히 '돌봄 공동체구축을 위한 역할 찾기' (김은경 / 세종리더십개발원 원장)에서는 함께 문제를 찾고, 공감하고, 대안을 찾는, 소중한 시간일 뿐만 아니라 협동조합시범회원Y 실무자로 참석한 나를 바짝 긴장케하였다.

"협동조합의 전환은, 단순히 조직의 변화만 피하는 것이 아니라, 협동조합의 가치를 공유해야 한다. 돌봄 회원의 조직화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경제적 활동을 목적으

로 찾아온 돌보미들에게 협동조합의 정체성과 가치관을 세워 나가기 위해서는 돌봄 발전방안이 충분히 논의되어야 하고, 교육을 통하여 돌보미의 권익증진을 위한 목적을 정립해야 한다. 돌보미들이 주체적으로 세워질 때 YWCA와 돌봄협동조합이 동반성장할 것이다."

## 제3의 모델, 돌봄회원들과 함께 살맛 나는 돌봄 사업 운영으로

직업훈련담당 실무자들의 감수성 회복을 위해 올레 10코스 순례와 공동체 프로그램이 있었다. 정희주 차장(서울YWCA)의 진행으로 이어진 공동체 워크숍은 올레길 순례 중의 미션수행이 백미였다. 조장을 정하지도 않았는데 '너가 해라' '내가 할게' 라며 공동체의 장점을 몸으로 익히는 시간이 되었다. 몸으로 YWCA를 표현해 보기도 하고, 모래위에 자기이름을 새겨 인증 샷을 찍기도 했다. 배변의 욕구해소를 위해 카페에 들어갔다가 그냥 나올 수 없어 3,000원짜리 커피를 사는 에피소드까지! 지역과 나이와 경험을 허물고 우리들은 친밀한 자매에, 공동체애를 느끼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이번 워크숍을 통해 YWCA돌봄 사업의 목적을 복지와 노동, 사회적 정의의 측면에서 재설계하는 제3의 모델개발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더불어 제주에서 한껏 채워진 에너지가 '돌보미들과 함께 살맛 나는 돌봄 사업을 이루겠노' 라 다짐하게 만들었다. 

# 열정을 품다, 미래를 보다

글 | 조은선 (연합회 청년리더십팀 팀장)



회원 Y-틴 담당 활동가, 연합회 실무자 및 대학/청년 Y 회원 총 20명이 10월 23일부터 25일까지 동해망상오토캠핑장에서 YWCA 청소년 활동가 워크숍을 가졌다. 올해 1월 Y-틴 중점운동 '독도지킴이' 를 선정하고 각 지역에서 활동을 펼쳤는데 이번 워크숍에서 지역별 활동 내용을 공유하고 내년도 전국협의회를 준비했다. 또한 청소년 담당 활동가로서의 역량을 키우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도 진행했다.

특히 '선배들과의 대화' 에서 희년의 집 원장을 역임한 안수경 위원(연합회 청년리더십팀)과의 만남은 현장에서 활동하는 YWCA 청소년담당 활동가들에게 많은 도전이 되었다. 안 위원은 청소년 담당 활동가의 눈높이 맞추어 자신의 삶을 나누고 활동가로서의 고충, 그것을 이겨낼 수 있었던 과정 등을 나누었다. 또 '영성 기도회' 를 했는데, 참가자들은 청소년 회원들을 위해 기도하며 활동가로서의 사명을 다졌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청소년 중점운동 선정 과정과 전국협의회 대표수 배정 등 현재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YWCA 청소년 활동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받은 제안은 내년 1월 Y-틴 전국협의회에서 안건으로 다룰 예정이다. 현장에서 청소년 회원들을 위해 기도하고 최선을 다하는 활동가들이 앞으로 청소년들과 함께 행복하고 즐거운 활동들을 이어나가길 기대한다.

### 정다훈(청주 대학 Y 회원)

### 참가 후기

대학 Y 회원으로서 청년 Y TFT 구성에 대한 의견을 내기위해 이번 청소년 활동가 워크숍에 참석했다. 드디어 전국의 간사님들이 동해에 모였다. 동해 Y 사무총장님과 점심식사 후 망상오토 캠핑장 소회의실에서 설렘과 기대로 인사와 나눔의 시간을 가졌는데 이름, 나이, 활동경력, 별명, 혈액형 등 서로가 서로를 소개해 주는 색다른 방식으로 진행이 되어서 어색함이 금방 풀려졌다. 다음 날 벽화마을과 출렁다리를 방문했는데 간사님들은 주변에 멋진 풍경들을 놔두고도 각 지역의 업무에 신경을 썼다. 책임감 있는 모습으로 업무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들이 멋있었고 앞으로 희생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본받아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저녁 식사 후 조은선 간사님의 인도로 기도회가 이어졌다. 기도하는 현장의 모습은 매우 뜨거웠고 진심으로 Y-틴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면서 Y를 위해 기도하는 모습들이 감동적이었다. 마지막날에는 Y-틴 중점운동, 전국협의회 문제 등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열띤 토론을 벌이는 간사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Y-틴을 향한 열정이 끝이 없다는 것을 느꼈고 매년 내놓는 해결책이 적용이 안 된다 할지라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계속해서 해결의 문을 두드리는 간사님들의 모습이 감동적이었다. 지금의 현실은 어두울지 몰라도 앞으로 Y의 미래는 밝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었다.

## YWCA 청소년 활동가는 이렇게 느낀다

이번 워크숍에서 '감정카드 뽑기' 시간을 갖고 청소년 활동가로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다. 무작위로 뽑은 감정카드에 적힌 단어를 접했을 때 그 느낌을 표현해보는 것이다.

### 소름끼치다

청소년활동가 워크숍을 통해 아이들을 믿고 기다려줘야 하는 것을 배웠다. 좀 더 시간이 흐른 뒤에 우리 여수 Y-틴이 소름끼치게 멋진, 괜찮은 사람으로 성장하길 바란다. 지금도 충분히 멋지고 괜찮지만...^^

### 고독하다 / 고무적이다

모두가 쉬는 토요일 밤, Y회관의 문을 잠그며 나오는 내 모습이 고독하기도 하다. 하지만 주저앉지 않고 더 고무적으로 매사에 최선을 다하면 아이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나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 유쾌하다 / 뿌듯하다

Y-틴 친구들과 함께 하는 시간들은 언제나 스펙타클하며 유쾌하다. 예전보다 함께하는 시간이 줄었지만 Y-틴 활동과 운동을 열심히 하며 성장하는 Y-틴을 볼 때면 뿌듯하다.

### 후회스럽다

Y-틴 아이들과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가끔 아파서 아이들에게 활력을 주지 못해 후회스럽다. 그렇지만 Y-틴이 있어 행복하고, 아이들을 통해 엄마의 마음을 배워간다.

### 빡다

Y-틴을 만나면서 내가 아이들에게 더 다가서지 못하는 것 같아 내 자신이 빡다.

### 기쁘다 / 나쁘다 / 몽글하다

청소년과 대학청년과 함께하는 순간은 기쁘기도 했지만, 기분 나쁜 일도 있었다. 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변해가는 아이들의 모습과 내 모습을 보며 몽글함을 느꼈고 나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다.

### 허전하다 / 활발하다 / 눈물겹다 / 가슴아프다

함께하지 않으면 허전함을 느끼고 너무나도 활발한 Y-틴 아이들을 보고 있으면 눈물겹게 이 사회를 헤쳐 나갈 아이들이 가슴 아프고 한편으로는 나 또한 위로받는다.

### 상큼하다

청소년에게 나는 상큼, 발랄하고 에너지 넘치는 지도자로 기억되고 싶다. 좋은 본보기가 되고 긍정적인 영향이 있는 사람이고자 노력한다.

### 따사롭다

주위 친구들은 그 많은 일들을 하며 어떻게 버티느냐고 안타까워 하지만 사람과 함께 하며 따사로운 느낌을 느낄 수 있는 내 일에 행복을 느끼고 있다.

### 갈망하다

건강하고 즐겁게 성장하는 청소년을 향한 갈망함으로 다시 한번 '화이팅' 을 외친다.

### 청소년활동가로서의 감사조건

1. 다양한 지역 탐방 가능하다. (찾은 출장과 외근이 있다)
2. 젊은 에너지를 받는다. (동안으로 본다)
3. 타 지역 실무자와의 교류가 활발하다. (다양한 인맥이 형성된다)
4. 청소년들과 함께!! 라는 그 자체가 감사하다.
5. 유행에 뒤처지지 않는다. (친구들보다 아이들 더 많이 안다)
6. 행사 동원 인력 확보된다. (Y-틴은 나와 함께한다)
7. 주말 데이트가 없어도 두렵지 않다. (우리에겐 할 일이 많다)
8. 사업능력, 기획력 등의 경험으로 어디가도 일 잘한다는 소리 듣는다.
9. 힘든 만큼 아이들의 변화를 느낄 수 있다.
10. 생일 때마다 Y-틴이 서프라이즈 이벤트를 해준다.

# YWCA가 만들어가는 문화

한국YWCA연합회는 매주 목요일 국민일보 32면에 YWCA 운동 정신과 현장을 소개하고 있다.  
10월에는 YWCA 문화 활동을 다루었다. (정리 : 편집실)



## 다문화 사회 - 결혼이주여성 10월 3일

2010년, 혼인부부 10%가 '국제결혼'  
대부분 언어·문화적 차이에 고통  
우리의 삶 방식 동화 요구 아닌  
이주민의 고유문화 존중하며  
서로 상생하는 길 찾는 지혜 가져야

2010년 현재 결혼하는 부부 열 쌍 중 한 쌍은 국제결혼이다. 다문화사회라는 것은 문화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상호문화를 존중하고 인정하려는 태도를 전제로 한다. 이를 위해서는 상대 나라의 문화적 태도를 알고 이를 바탕으로 그 사람의 행동 양식 및 의식 구조를 이해하려는 적극적인 수용 태도가 필요하다. 결혼이주여성들에 대한 문화 교육은 이주민과 원주민의 이해를 바탕으로 통합을 목표로 삼아야 함을 강조하고 싶다. 선주민(내국인)들의 이해가 우선되어 서로가 상생하는 길을 찾아가는 것이 바람직한 지원이라 할 수 있다.

〈가만나는 세상〉목포·진주 등 요리·한글교실 열어 정착 지원  
목포와 동해Y는 다문화아동 지원 사업을 벌이면서 '엄마와 함께하는 찾아가는 한글배움터'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진주Y와 충주Y 등에서는 다문화가정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으로 '찾아가는 문화나눔' 활동을 벌인다. 포항Y는 결혼이주 여성의 한국 생활 적응을 돕고자 매 분기마다 민들레모임을 진행하여 생활에서 겪는 다양한 어려움과 가족관계의 예절

과 전통을 배우며 문화적 차이를 극복하고 있다.

## 다문화 사회 - 다래교실 10월 10일

다문화 청소년 대상 작년부터 운영  
읽기·쓰기 등 기초 한국어 교육 초점  
작년 17개 지역Y·3개 협력기관서  
교사 36명 10개월간 학습지원

한국Y는 2012년부터 다래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다래교실은 '다문화청소년들의 미래를 위한 교실'로서 초등학교 저학년에서 중, 고등학교까지의 다문화 청소년 및 일반 청소년들에게 기초 한국어를 지도하고 독서지도를 통한 어휘력 향상 및 정서적 지지, 문화체험 등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다래교실은 결혼이주여성들의 자녀뿐 아니라 탈북 청소년, 중도입국 청소년,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들도 포함하고 있다. 이들을 위한 사회적인 보살핌과 배려, 정서적인 지지는 다음세대 한국사회의 다양성과 공존의 가치를 기르는 가장 효과적인 길이다.

## 〈가만나는 세상〉섬마을 찾아가는 한글배움터

전남 신안군 자은면의 복지관 강당에서는 '세계를 품은 아이'라는 찾아가는 섬마을 한글배움터가 열렸다. 목포Y는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두 시간씩 다문화가정 영유아, 어머니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한국어를 통해

자녀와 대화하고 육아법을 배운다는 것은 자라나는 다문화 어린이들의 건강한 미래와 다문화 가정 행복의 초석이다.

## Y회원들의 문화활동 10월 17일

공연·전시 등 재능기부 형태로 진행  
기획 단계부터 아이디어 공유  
개인 차원 아닌 사회적 차원에 의미  
창립 90주년 기념 음악회가 대표적

문화의 계절 가을이다. Y회원들의 문화 활동은 성취감, 즐거움을 나누는 자리다. 개인적 차원의 나눔과 성취를 넘어 사회적 차원의 의미를 공연을 통해 나눈다. 한편, 생활과 삶과 직결되는 부분에서의 문화 운동도 Y의 문화 활동이다. YWCA 활동가와 회원들은 자연환경과 생명, 여성과 가정, 성에 대한 건강한 문화 만들기를 통해 생각과 습관, 생활 전반에 걸친 생명 사랑의 문화를 전파하기도 한다.

## 〈가만나는 세상〉양산Y '다듬이소리 극단'

지난 6월 13일 창단한 '다듬이소리 극단'은 8명의 4,50대 주부들로 구성되었다. 단원들은 양산Y의 '동화구연전문가 과정'을 듣고 수료하였고 자발적으로 극단을 만들게 되었다. 박정숙 단장(양산Y 이사)은 "관객이 공연을 즐겁게 보고 웃는 얼굴에서 힘을 얻는다. 문화는 말로 하지 않아도 마음과 마음이 이어지는 느낌인 것 같다"고 말한다.

## 정의·평화·생명 '새벽종소리'에 답아 시민사회 깨운다 공정교회 이천진 목사 10월 24일

이대부고 채플서 설교할 때  
눈에 띄어 남성으로서 Y와 인연  
'생명사랑공동체 운동' 펼치며  
신학적 확신 활동가들에 심어줘  
2011년 자체 영성훈련 교재 집필

한국YWCA연합회 영성팀의 전문자문위원이자 공정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이천진 목사는 2011년 4월 한국YWCA 최초의 자체 영성교재인 '새벽종소리'를 펴냈다. '새벽종소리'

는 단순한 영성교재가 아니라 YWCA 운동을 신학적 차원에서 고민하고 신학적 근거로 뒷받침하여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할 수 있도록 만든 책이다. 이 책은 YWCA 운동 방향이 YWCA 목적문 '정의, 평화, 생명' 안에서 공고히 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신학적 확신을 활동가들에게 심어준다. 그는 YWCA의 정의, 평화, 생명운동이 곧 하나님 나라 운동이라고 생각하며 활동하고 있다.

## YWCA 키다리학교 10월 31일

서울·광주·대전·청주 등 6곳 운영  
학생들 스스로 프로그램 만들어  
인권·평화 등 주제 선택해 운영  
다른 사람 아픔 알고 사회와 소통

YWCA 키다리학교는 '함께 만들어가는 학교'다. 공부할 주제도 프로그램도 학생들이 스스로 만들어간다. 'Y다운 리더'는 자기 삶의 목표가 어디에 있는지 아는 건강한 비전을 가진 청소년리더, 더불어 공동체와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리더, 이를 통해 사회와 소통하는 리더이다. 키다리학교에는 'Y다운리더' 즉, 공감능력과 협동력을 지닌, 실천하는 리더가 있다. 학생들은 자치의 원리를 따라 모든 학교의 커리큘럼과 활동과 행사들을 스스로 기획하고 참여하고 평가한다. 서로를 배려하며 세우며 함께 자라나는 학교가 키다리학교이다.

## 〈가만나는 세상〉안양Y-틴 평화퍼포먼스 난타공연

안양Y Y-틴 키다리학교 리더들이 10월 15일 난타공연을 했다. 이번 난타공연은 안양Y Y-틴들이 '청소년평화의 울림, 두드림 그리고 나눔'을 주제로 한 해 동안 기획하고 연습하여 펼친 무대라 더욱 뜻 깊은 자리였다. 그동안 수차례의 기획회의가 있었는데, 매 단계마다 스스로 문제점과 개선점을 찾으며 자유롭게 의견을 제안했다. Y-틴은 토요일마다 모여서 자치모임을 하고, 동아리활동에서 맡은 역할을 책임지며 함께 성장하고 있다. 🐘

# 변화가 되라(Be the Change)

## 첫째 날

존재: 우리는 '존재하도록' 부름 받았습니다. (롬 12:2; 갈 5:13)

이 시대는 '더 많이 가지거나 소비할수록 더 많이 행복하다'고 우리를 설득하고 있습니다. 깊은 영적 감각으로 우리 인생과 사회를 숙고하지 않는다면, 오늘날의 지배적인 힘으로 우리는 온통 뒤죽박죽이 되고 말 것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로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자유가 무엇인지 분별해야 할 때입니다. 나아가, 지배적인 삶의 형태를 단순하면서도 서로 나누는, 보다 더 정신 지향적 삶의 형태로 바꾸도록 돕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도덕적 의무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삶의 형태는 우리 모두를 평화로우면서도 지속 가능한 삶으로 이끌 것입니다.

## 기도

생명의 하나님!  
당신께서 특별한 의도와 의미를 두고 우리를 땅 위에 창조하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물질주의와 소비주의 한 가운데에서, 우리는 종종 우리가 누구이며 왜 존재하는지를 잊곤 합니다. 우리 하나님! 당신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진정한 목적을 열망합니다. '소유'가 아니라 '존재'로 우리가 있다는 단단한 믿음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소서. '존재' 위에 굳게 설 때, 우리가 우리 이웃과 나누게 되고, 우리 가운데 평화와 생명의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헌신하도록 우리를 이끌리라 믿습니다. 우리를 복주시사, 우리로 소유에서 존재로 변화되는 첫 사람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둘째 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나 자신입니다. (빌 1:6)

많은 순간 우리는 우리 삶에 두신 하나님의 계획을 잘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충분히 신뢰한다면 우리 각 사람으로 하나님의 계획에 맞게 자라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올바른 태도, 인격, 믿음이 자라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명을 수행하게 하십니다.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바로 우리 자신들이지만, 우리 역시 우리 삶에 두신 하나님의 계획을 위한 효과적인 도구들로

변화되도록 기꺼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을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사 우리 가족, 공동체 그리고 온 세상에 변화를 가져오실 것입니다. 참으로, 여러분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은혜는 즉각적이지만 성장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 기도

당신의 사랑과 당신의 은혜로 우리 자신을 들여다볼 용기를 주시고 변화에 필요한 것을 행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개인적 변화와 성장이 우리 스스로 내려야 할 결정임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우리 가족과 공동체, 온 세상에 변화를 만들어 내는 것을 돕기 위해 당신이 사용하시는 그릇됨을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를 도우사 이 일이 언제 나 쉽지 않다는 것, 그렇지만 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셋째 날

당신이 있으니 내가 있습니다: 내 이웃을 통한 하나님의 개입. (마 22:34-40)

이 세상의 시민으로서 우리는 홀로 존재하지도 않고 존재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공고하게 하면서 우리 자신의 미래를 만듭니다. 예수께서는 '네 자신을 사랑하듯이, 네 이웃을 사랑하라' 명하십니다. 그것은 '네가 배고플 때 음식을 갈망하듯이, 네 이웃이 배고플 때 그를 먹이기를 갈망하라'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삶에서 정의를 갈망하듯이, 이웃의 삶에서 정의를 갈망하십시오. 또한 예수께서는 위로와 안전을 찾으라, 의미를 찾으라, 낯선 이에게 친구가 되라고 말하십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해주기를 원하는 대로, 그렇게 그들에게 해주십시오.

## 기도

하나님, 우리가 바랄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도록 우리 모두에게 평온함을 허락하소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바꾸는 용기와 차이를 아는 지혜를 허락하소서. 한 번에 하루를 살고, 한 번에 한 순간을 즐겨워 하며, 역경을 평화로 이끄는 길이라 받아들이며, 주께서 그러하셨듯이,

# World YWCA and YMCA Week of Prayer and World Fellowship 10 -16 november 2013



이 죄된 세상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그 있는 대로 받아들이며, 우리가 주의 뜻에 순종할 때 그가 모든 것을 바르게 하실 것을 신뢰하게 하소서. 그래서 우리로 이 세상에서 합당한 행복을 누리게 하시며 무엇보다 주와 함께 행복하게 하소서. 영원토록. 아멘.

## 넷째 날

내가 변화됩니다: 변화받으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기. (요 14:6; 요 10:1; 눅 24:29)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름 받았으며, 이 점은 YWCA와 YWCA로서 우리의 기독교적 사명의 중심에 있습니다. YWCA와 YMCA는 그 사명의 맥락 안에서, 바로 이 순간에 무엇을 위해 이 자리에 존재하는지 스스로 물어야 합니다. 집단을 구성하는 개인의 변화가 없는 어떤 집단적인 변화도 없습니다. YWCA와 YMCA의 경우 믿음의 혁명은 사랑, 연대, 정의, 평화의 불빛이 밝게 빛나게 할 상태를 창출하겠다는 헌신에 일치하는 행동입니다. 우리는 혼자 아니며, '낮이 훨씬 지나고 밤을 향해 가고 있기에'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를 구해야 합니다.

## 기도

생명의 주이신 예수님, 우리를 축복하사 우리로 고통과 빈곤, 참상과 배제에 무관심하지 않게 하옵소서. 그래서 YWCA와 YMCA를 통해 우리의 비판적인 정신과 예언자적 외침이 들리지게 하옵소서. 우리로 당신 나라의 가치의 틀 안에서 행동하게 하옵소서. 우리로 역경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진정한 힘은 섬김을 통해 드러난다는 것을 언제나 명심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사랑, 정의, 평화, 연대가 우리의 가슴에 희망으로 스며들게 하시어 이상향을 이루는 힘이 되게 하옵소서.

## 다섯째 날

목상: 젠더 불평등 다루기. 행동에로의 부름.

"... 내 마음은 기쁨으로 넘쳐흐릅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음이 좋습니다. 이제부터 모든 사람들이 외치게 하소서. 멋진 선물입니다. 참

으로 권세가 그에게 있으니, 그가 우리를 높이사 찬양케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대대로 신뢰하는 이들에게 비같이 내릴 것입니다. 무시당한 이가 높임 받았습니다. 교만하고 힘 센 이들은 넘어질 것이니, 하나님께서 배가 텅 빈 자들에게 잔치를 베풀었고, 부자들은 그들이 텅 비게 된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찍이 주신 말씀을 행하였습니다..." 찬가(Phoebe Willets, 여성을 경축하며)

## 기도

오, 이야기들을 보존하시고 꿈들을 지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목소리를 자유케 하소서. 진리를 말하고 거룩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용기를 주소서. 우리 마음을 열어 우리 가운데 있는 중언의 지혜를 깨닫게 하소서.

## 여섯째 날

변화를 위한 도구들: YWCA와 YMCA는 변화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수단들이다. (마 5:9; 시 72:12-13)

하나님은 정의와 평화를 위해 일하도록 우리를 부르십니다. YWCA와 YWCA의 회원으로서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할 필요가 있는지 매우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 나라를 땅 위에 확장하는 것입니다. 과거 우리가 우리의 목소리와 노력을 모을 때마다 변화가 있었습니다. 우리 자신이 변화가 됨으로써, YWCA와 YMCA는 전 지구적 수준에서의 변화를 위해 더 많은 행동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기도

우리 아버지시요 어머니이신 하나님, 정의와 평화를 위한 우리 사역을 축복하소서. 우리를 도우사, 빈곤, 정복, 그리고 다른 악한 정책들을 끝내기 위한 우리 싸움에 힘을 모으게 하소서. 우리에게 힘과 영감을 주사, 온 세상에서 평화를 만드는 종교간 운동을 일으키게 하소서. 아멘.


# 다시 프로테스트 - 10월의 프로테스탄트

글 | 이 정 배 (감신대 교수)

## 누가복음 24장 : 5-6절

지금 서울에는 이 시대 최고의 철학자 두 사람이 사자후를 토하고 있다. 지적과 바디유, 이 두 철학자는 새로운 질서(체제)를 상상하고 창조하는 것이 철학의 실천적 과제라 토로한다. 오늘날 교회에도 이 두 철학자의 사유가 필요하다. 어느덧 천덕꾸러기가 되어 버린 교회들이 자신을 향해 다시 프로테스트 해야 될 때인 것이다. 본문 말씀대로라면 더 이상 하나님을 죽은 자(무덤)들 속에서 찾지 말고 공생애를 시작했던 갈릴리를 기억하라는 것이다. 이런 문제의식 하에 '작은 교회가 희망'이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다. 이 주제 하에서 교회들은 탈(脫)성장, 탈(脫)성직, 탈(脫)성별 등 세 개의 '脫'을 공유한다. 그렇다면 성서적이고 복음적인 교회의 역사적 형태는 무엇인가? 일반적으로 교회는 하나님 나라와 동가는 아니나 상응하는 가치와 권위를 지닌 세속기관이다. 그래서 혹자는 교회를 세상 안에 있되 세상 밖을 사는 사람들의 공동체라 부르기도 한다. 이 땅에서 불가능한 가능성(새로운 체제)을 실험하는 공간으로서 종종 신앙은 불가능한 것에 대한 열정으로 이해된다. 하지만 자신들만의 문법(언어)에 갇혀 정작 세상(속)적 가치를 선호하는 것이 오늘의 교회의 모습이다. 요즘 영성이란 말이 회자되나 그것 또한 실용적 차원에서 요구될 뿐 삶 자체를 달리 만드는 것(제자 되기)과는 무관치 않다. 제자가 실종되었듯 하나님 나라를 닮아있는 교회의 부재 역시 당연한 결과다. 교회에 가는 것이 불가능한 것을 향한 열정(하나님 나라) 때문이 아니라 몸과 마음의 안정과 개인적 내적 평화를 위해서인 것도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다.

언제부터인가 예수 삶을 강조하는 '역사적 예수'에 대한 관심이 확산되고 있으나 현실 교회는 이를 불편하게 생각한다. 역사적 예수는 오늘날 교회가 지키려는 교리적 차원과 상당히 다른 까닭이다. 또한 초대 교회에 대해 바르게 아는 것도 중요한데 초대 교회는 오늘날과 같은 교리와 신조의 공동체가 아닌 다양한 신학과 삶을 지닌 공동체였다. 교회들의 형태도 다르고 저마다 전혀 다른 삶을 기획하였으나 오로지 예수 삶을 따르는 것이 그들의 공통점이었다. 한 신학자는 이런 역사적 공동체를 언더그라운드 교회라 통칭했다. 그곳에는 소위 '복음의 정치학'이란 것이 있었던 까닭이다.

'복음의 정치학'은 당시 체제를 불편하게 했고 그들의 존재를 위협하기도 했다. 걸인에게 잔치를 베풀었고 일한 시간에 관계없이 품삯을 주었으며 성전을 무너지라 했고 안식일 법을 무력화 시킨 예수는 분명 체제가 요구하는 존재는 아니었다. '복음의 정치학'은 주기도문이 말하듯 하늘의 정의를 이 땅에 심고자 했기에 때론 과격했다. 예수 추종자들을 지탱한 것은 일치된 신조가 아니라 예수를 추종하는 진정한 제자도였다. 그들에게 예수가 주님이란 고백은 교리적 차원이 아니었고 로마(세상)가 세상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이자 그들 삶의 양식과 전혀 다른 대안적 삶의 실천이었다. 프로테스트의 실상으로서 세 종류의 '脫'에서 '脫' 성장은 확실성이 아니라 다양성과 유관하며 '믿기'가 아니라 '살기'의 차원을 중시한다. '脫' 성직은 누구나가 예수 삶을 사는 것, 제자 되기를 의미한다. '脫' 성별 역시 기독교 성숙의 잣대이자 민주 사회의 역량을 반영한다. 세 형태의 '脫'은 '다시 프로테스트'를 위해 오늘의 예수 제자들이 걸머져야 할 과제가 되었다. 또한 우리는 향후 또 하나의 '脫'을 지향해야 할 것인바, 그것은 바로 '脫' 서구다. 그 바탕에서 교회론의 '한국적' 의미를 생각하는 것이 다시 프로테스트의 마지막 과제라 생각한다. 역사적 공동체로서의 교회의 본 모습을 되찾아 그에 근거한 세 개의 '脫'을 시도할 수 있을 때 비로소 '프로테스탄트'의 위상이 다시 생겨날 수 있을 것이다. 

# 연합회 소식

## 10월 월례아침기도회



10월 월례아침기도회가 10월 1일 오전 7시 30분 서울YWCA 강당에서 있었다. '다시 프로테스탄트'라는 제목으로 이정배 목사가 말씀을 전하였으며 YWCA 생명운동과 평화를 위해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연합회와 서울Y 자원지도자 및 실무자 70여명이 참석했다.

## 제11회 한국여성지도자상 수상자 선정

제11회 한국여성지도자상 수상자가 선정되었다. 대상 이희호 김대중평화센터 이사장, 젊은지도자상 이애란 북한전통음식문화연구원 원장, 특별상 강경화 유엔 인도지원조정국 사무차장보가 수상한다. 시상식은 11월 7일 오후 2시 전국은행연합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렸다.

## 제10차 세계교회협의회 총회 여성 사전대회

제10차 세계교회협의회 총회 개막에



앞서 여성 사전대회가 10월 28일부터 29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열렸다. 한국YWCA연합회, 광주Y, 부산Y 등이 참석했다. (자세한 내용 P.6~)

## 직업훈련 담당 실무자 워크숍

협동조합 핵심리더 양성을 위한 직업훈련 담당 실무자 워크숍이 10월 17일부터 19일까지 제주에서 있었다. 강의, 워크숍, YWCA 돌봄 현안 논의 등이 있었다. 회원Y 실무자와 연합회 위원, 실무자 총 43명이 참석했다. (자세한 내용 P.24~)

## 청소년활동가 워크숍



2013 YWCA 청소년활동가 워크숍이 10월 23일부터 25일까지 동해망상오 토캄핑장에서 열렸다. Y-틴 중점운동 워크숍, 청소년활동가 선배와의 만남, 영성훈련프로그램, 대학·청년Y 활성화를 위한 논의 등이 있었다. (자세한 내용 P.26~)

## 씽크머니 2차 씨티강사교육



씽크머니 2차 씨티강사교육이 10월

29일에 연합회 강당에서 개최되었다. 씽크머니 사업 소개를 시작으로 청소년의 이해, 강사의 역할과 자세, 씽크머니 교재연구 및 강의실습 등의 내용으로 교육이 진행되었다. 해당 교육을 이수한 씨티강사들은 씽크머니 특강 강사로 활동을 펼치게 된다. 씨티은행 임직원 30명, 연합회 위원 및 실무자 5명 총 35명이 참석했다.

## 대만 타이중YWCA 한국YWCA 연합회 방문

대만 타이중Y 방문단 27명이 10월 16일 한국YWCA연합회를 방문했다. 한국YWCA, 복지시설 및 결혼이주여성지원활동 소개 및 질의 응답 시간을 가졌다.

## 국제종교인한반도평화회의

국제종교인한반도평화회의가 10월 25일부터 27일까지 DMZ평화광장에서 열렸으며, '남북한 평화형성의 영적 윤리적 소명'이라는 주제로 10여개국 60여명이 참가하였다. 평화회의, 백마고지 평화예식, 평화선언문 낭독, 청소년 문화축제 등의 일정으로 국경선평화학교, YWCA, NCCK, YMCA 등의 국내단체들이 함께 하였다.

## 등 정

- 유성희 연합회 사무총장 <시사저널> 차세대 리더 NGO분야 1위 선정 (2013. 10. 22)
- 원영희 연합회 실행위원 세계Y 이사회 참석 (2013. 10. 14-18)
- 김명숙 천안YWCA 사무총장 취임 (2013. 11. 1)

# 회원 YWCA 소식

## 북부

### 서울 YWCA

### 박서영 간사

#### 서울YWCA 큰장날



서울Y는 10월 17일 서울YWCA 큰장날 'Happy Together'를 열었다. 풍성한 먹을거리를 마련하여 명동 직장인들이 점심식사를 하도록 했고, EM(유용한 미생물) 공개강좌를 오전 11시와 오후 2시에 진행했다. 결혼이주여성들의 세심한 관리가 돋보이는 네일아트코너도 마련했다. 1960년대부터 시작한 서울Y 큰장날은 비닐백을 사용하지 않는 친환경장터로 운영되었다.

### 인천 YWCA

### 이한나 간사

#### 빈 그릇 운동으로 클린 인천 만들기



인천Y는 '빈 그릇 운동으로 클린 인천 만들기'를 진행하고 있다. 인천광역시 시청 구내식당을 비롯하여 인천시 관내 6개 구청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홍보전단지

배포 및 설문조사로 이뤄진 행사로, 이날 잔반이 1/3로 줄어드는 효과가 있었다. 또한 유용한 미생물 EM을 확대 보급하는 일도 함께하여 자원순환의 의미를 알아가는 시간도 되었다.

### 강릉 YWCA

### 전정미 간사

#### 다문화 가족 가을나들이

강릉Y는 10월 23일 다문화 가족들과 함께 양떼목장으로 가을 나들이를 다녀왔다. 다문화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면서 신재생에너지전시관도 방문했다. 풍력 발전의 역사와 원리, 우리나라 에너지 현황과 신·재생에너지, 국내 최대 규모의 대관령풍력 발전 단지 등을 알아보는 유익한 시간을 가졌다.

#### 여성 희망찾기 4차 교육

강릉Y는 10월 21일부터 25일까지 '여성희망찾기 교육'을 진행했다. 취업을 희망하는 경력단절 고령자여성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치료레크레이션, 직장인의 예절, 직장생활과 안전관리, 환경살림, 인생 로드맵, 현대인의 키워드 소통 등을 배웠다. 이번 교육 수료 후에는 간병사 또는 살림돌보미로 활동이 가능하다.

### 동해 YWCA

### 김정은 간사

#### 일일찻집 및 바자회



동해Y는 10월 1일 코스모스호텔 7층 매화홀에서 일일찻집 및 바자회를 열었다. 동해Y는 소외된 어르신들을 위한 무료급식소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 이번 일일찻집과 바자회는 어르신들에게 식사를 제공할 수 있는 민들레밥상기금마련과 북한어린이들을 돕기 위한 기금 마련으로 열렸다. 이날 행사에 시민 1,000명이 참여하였다.

### 속초 YWCA

### 백수미 간사

#### 애들아 밥먹자



속초Y는 10월 15일 속초중학교에서 '애들아 밥먹자' 행사를 진행했다. 속초 관내 농협과 함께 진행한 것으로 학교 정문에서 학생들에게 주먹밥을 나누어주었다. 이 주먹밥은 이사와 실무자들이 함께 만들었다.

### 춘천 YWCA

### 진소정 간사

#### EM 화장품 기초교실

춘천Y는 10월 18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EM 화장품 기초교실'을 진행했다. 춘천Y는 매월 둘째 주 수요일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EM 생활환경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발효화장품의 이론, 발효의 원리와 기법 강의를 듣고 EM피테라 스킨, EM탄력 에센스, EM링클케어 크림의 3종 화장품을 만들었다. 시민들이 EM을 좀더 친숙하게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

## 경기

### 고양 YWCA

### 남궁혜경 간사

#### 제24주년 창립기념예배



고양YWCA는 10월 30일 제24주년 창립기념예배를 드렸다. 서영호 목사(가좌교회)의 '공동체와 사명'이란 주제 말씀이 있었다. 24년 역사를 돌아보며 지역공동체 살림의 역할을 할 것을 다짐했다.

### 남양주 YWCA

### 이종은 간사

#### 애들아 밥먹자



남양주Y는 10월 11일 '애들아, 밥먹자' 캠페인을 진행했다. 덕소역과 도심역 두 군데서 이사, 위원, 실무자, 그리고 신한은행 덕소지점 지점장 및 직원들이 함께했다. 학생과 시민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 부천 YWCA

### 이지원 간사

#### 부천시 성별 영향분석 평가 모니터링 간담회

부천Y는 9월 25일 부천시의회에서 '부천시 성별 영향분석 평가 모니터링 간담회'를 진행했다. 김경희 박사의 '성별영향 분석평가 제도의 이해' 강의에 이어, 부천시 성별영향분석평가 모니터링 결과보고(부천Y 사무총장)가 있었다. Y의 성별영향분석평가 모니터링사업의 중요성에 공감했고, 풀뿌리 젠더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부천시의원, 부천시청 가족여성과 과장, 성인지 정책팀장, 주무관, 부천시 여성단체 대표자, 부천Y 이사 등 총 26명이 참석했다.

#### 청소년봉사단 가을 나들이

부천Y 청소년자원봉사단 '함박웃음8'은 9월 28일 홀몸어르신을 모시고 인천대공원으로 가을나들이를 다녀왔다. 어르신과 청소년이 함께 한 행복한 시간이었다.



전개했다. 이사, 직원, 회원들이 만든 주먹밥을 농협 안산시지부 직원들과 함께 나눠주며 학생들에게 아침밥의 중요성을 알리고 바른 먹을거리에 대한 교육을 진행했다.

**돌봄노동과 일·가정 균형을 위한 토론회**

안산Y는 10월 23일 안산글로벌다문화센터에서 돌봄노동과 일·가정 균형을 위한 정책제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2013년 성평등 문화제 '함께 일하고 함께 돌봐요'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에서 여성들의 일·가정 양립의 현실태를 파악하고 현실적인 정책을 제안하는 자리였다.

**수원YWCA 정지영 간사**

**친친와이파이존 학교공간 바꾸기**



수원Y는 9월 14 삼일중학교와 함께 '우리학교는 친친와이파이존- 학교공간바꾸기'를 했다. 학교 내 상담실은 학생과 교사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Relax&Heal'이라는 주제로 재구성되었다. 참여한 학생들과 교사들은 직접 두 달간 페인트칠과 벽화를 그리는 등의 활동을 했다.

**안산YWCA 문성은 간사**

**애들이 밥먹자**



안산Y는 10월 17일 단원중학교에서 애들이 밥먹자 캠페인을

**안양YWCA 김희정 간사**

**여성 유망직종 페스티벌**



안양Y여성인력개발센터는 10월 15일 안양역사 및 롯데백화점(안양점) 광장에서 '제18회 여성 유망직종 페스티벌'을 개최했다. 이번 페스티벌에 약 3천명 이상이 모였다. '움직이는 세상! 뛰어라 여성이여!'란 슬로건 아래 취업관, 도전직종관·미래유망직종전시관, 유망직종체험관, 홍보관 등을 만들어 주제별로 다채롭게 꾸몄다.

**유용한 미생물 EM부스 운영**

안양Y는 유용한 미생물 EM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다. 9월 15일 안양월드휴먼브리지에서 주최하는 사람사랑 생명사랑 2013 걷기축제와 10월 5일 안양시민축제에서 EM부스를 운영했다. 저탄소 실천 퀴즈, EM교육, 쌀뜨물 EM발효액 만들기 순서로 진행하고 EM발효액을 무료로 나누어주었다.

**의정부YWCA 이미진 간사**

**YWCA 생명사랑 녹색 나눔장터**

의정부Y는 10월 19일 회관 앞 잔디광장에서 '생명사랑 녹색

나눔장터'를 열었다. 나눔장터에서 건강한 국산 먹거리와 친환경 EM제품을 판매하고, 재활용이 가능한 물건을 깨끗이 손질하여 교환하는 아나바다를 진행했다. 이번 장터의 수익금 일부는 북한어린이돕기 운동에 후원한다.

**중부**

**대전YWCA 강은혜 부장**

**방사능 오염 먹거리 감시강화 촉구 캠페인**



대전Y는 10월 14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대전역 광장에서 '식품방사능 오염도 표시 및 방사능 안전허용 기준치 하향조정 촉구 캠페인'을 펼쳤다. 캠페인을 통해 대전시민들에게 정책제안을 위한 서명을 받고 일본산 수산물 안전성에 대한 설문조사도 실시했다. 원전과 방사능의 심각성과 위험성을 시민들에게 적극 알릴 수 있었다.

**청주YWCA 박보람 간사**

**싱크머니 E.캠프**

청주Y는 9월 28일 싱크머니 E.캠프(Energy:에너지, Eco:환경, Economy:경제)를 지역아동센터아동, 일반아동 총 45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하였다. 오전에는 아나바다 거리장터에 참여하여 미션활동(장터체험, 아나바다 거리장터 취재활동, 경제캠페인)을 진행했고, 오후에는 청주Y에서 조별로 취재한 아나바다 거리장터에 대한 신문을 만들어서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경제를 놀이 활동으로 배워 경제가 쉽고 재밌는 분야라는 것을 알리는 기회가 되었다.

**찾아가는 여성영화 상영회**

청주Y는 9월 17일 청주시 청소년수련관에서 '두 번째 찾아가

는 여성영화 상영회'를 가졌다. 20여 명의 청소년이 영화 '명왕성'을 관람하고 박인영 영화평론가와 함께 입시 경쟁에 내몰린 청소년들의 현실과 아픔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충주YWCA 김애영 부장**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먹거리 지키기 캠페인**



충주Y사회개발위원회는 9월 28일 세계무술공원에서 식품의 방사능 오염도 표시 및 방사능 기준치 하향 조정을 촉구하는 캠페인을 열었다. 사회개발위원회 위원들은 홍보지를 나눠주며 캠페인의 목적을 설명하고 서명운동참여를 독려했다. 이날 서명에 시민 400여 명이 참여했다.

**돌봄 회원 대상 가정폭력 예방교육**

10월 10일 충주Y 돌봄회원 대상으로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했다. '행복의 시작은 폭력 없는 가정'이라는 주제로 다양한 폭력의 종류와 방법, 문제발생시 대처방법과 전문기관의 도움 방법 등을 알렸다.

**논산YWCA 김화선 간사**

**후원의 날**



논산YWCA는 11월 16일 토요일에 창립 13주년 기념 후원의 날 행사를 갖는다.

세종YWCA 홍진영 팀장 애들이 밥먹자



세종Y는 10월 18일 조치원여자고등학교에서 '애들이 밥먹자'를 실시했다. 아침밥의 중요성을 일깨우며, 아침밥에 관한 설문조사를 하고, 아침밥을 먹도록 독려했다. 주먹밥은 지역농산물을 이용해 만들었다. 청소년위원회와 사회개발위원회가 함께 주관하여 자원봉사자들이 함께했다.

천안YWCA 이연주 간사 통기타에 희망을 싣고2 사회 환원 공연

천안Y는 10월 4일 천안 흥타령축제의 자유무대에서 '통기타에 희망을 싣고2' 공연을 했다. 행활인(일명 노숙인)들이 그동안 배웠던 기타 연주를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눈다는 의미로 기타독주와 악기합주를 했다. 또한 '어느 노숙인의 시'를 낭독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시민들의 가슴을 울리기도 했다. 이날 천안올림통동아리의 무대와 우쿨렐레동아리, 오카리나동아리가 함께 이 자리를 빛내주었다.

환경교육 천안Y와 다문화 가족들이 환경을 지키는 '초록지킴이'가 되어 환경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10월 5일부터 26일까지 6회에 걸쳐 지구온난화, EM활용(음식물), 물의 실내교육과 더불어 숲체험, 음식물처리장 견학, 생태체험의 실외교육을 한다. 20명의 엄마와 아이들의 모임으로 시작했는데, 2회기부터 아빠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가족이 하나 되어 환경을 지키는 '초록지킴이'가 되었다.

서부 광주YWCA 김해정 간사 서부지역 식품 방사능 오염 감시강화 촉구 기자회견 및 특별강연

서부지역 YWCA는 지난 10월 21일(월) 광주Y에서 식품의 방사능 오염 감시강화 촉구 기자회견 및 특별강연을 열었다. 기자회견을 통해 △일본산 수산물 수입 전면 중단 △전수검사 실시 △방사능 식품 안전기준치 하향조정 등을 정부에 요청하였다. 또한 '식품의 방사능오염과 에너지문제'라는 주제로 이유진(녹색당 공동정책위원장) 강사의 특별강연을 통해 안전한 먹거리를 지키기 위해 시민과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을 인식하고, 대안에너지를 통한 탈핵운동의 중요성을 깨닫는 시간이 되었다.

평화포럼 '통일은 반드시 옵니다' 광주Y는 10월 15일 광주Y 강당에서 회원초청강좌로 평화포럼을 개최했다. '통일은 반드시 옵니다'의 주제로 장혜숙 증경 회장(광주통일위원회 부회장)과 박진희 새터민(광주통일위원회 강사)의 강연이 있었다.

남원YWCA 박경은 간사 여성 그린교실(EM교육)

남원Y는 남원 시민을 대상으로 10월 7일, 14일, 21일 여성그린교실(EM교육)을 열었다. 도말순 양산Y 회장의 강의를 시작으로, EM 주방세제 만들기, 친환경 수세미 만들기를 했다. 남원 시민의 많은 참여로 남원이 친환경 도시로 거듭날 것을 기대한다.

전주YWCA 김은진 부장 어르신 건강기능식품 소비자 교육

전주Y는 9월 23일 어르신 150여명을 위한 건강기능식품 소비자 교육을 실시했다. 건강기능식품의 개념과 유사기능식품과의 구별법, 구입 시 주의할 사항 및 대처방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허위과대 광고로부터의 피해예방을 줄이고자 했다.

직장인 부모를 위한 야간 부모교육 실시 전주Y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9월 23일, 30일 오후 7시부터



10시까지 직장인 부모 50여명을 대상으로 '아이는 사춘기, 부모는 성장기'라는 주제로 야간 부모교육을 했다. 심리극을 활용한 가족치료와 감정자율기법을 활용한 부모양육스트레스 관리를 주제로 일과 자녀교육을 병행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여 큰 호응을 얻었다.

익산YWCA 정아영 간사 YWCA 평화 캠페인

익산Y는 9월 28일 익산시 줄마축제에서 가두행렬을 하며 YWCA 평화 캠페인을 펼쳤다. 익산시내 지역아동센터에서 나온 아동들과 회원들이 남북이 통일되는 그날까지 북한 어린이를 향한 사랑운동을 펼치기로 다짐했다. 이날 북한어린이돕기 모금운동과 평화의 메시지 보내기를 했다. 또한 익산Y 회원들이 이마트의 지원으로 파인애플 판매를 하여 기부금을 마련했다.

광양YWCA 추효인 간사 학교 공간바꾸기

광양Y는 10월 12일부터 13일까지 광영중학교에서 '우리학교는 친친와이파이존- 학교공간바꾸기'를 했다. 이번 프로그램에서는 교사와 학생들의 의견으로 후문 근처 담벼락에 벽화를 그려 넣었다. 무채색의 시멘트벽에 아이들의 꿈과 희망을 표현하고자 밝은 색상을 이용하여 벽화를 완성했다. 포스코 건설, A&C, 포스코설비기술부 직원 및 광영중학교 학생들이 자원봉사자로 참여했다.

목포YWCA 관수현 부장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양성평등교육

목포Y여성인력개발센터는 10월 10일 효성요양병원 재직근로자 60명을 대상으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양성평등교육'을 실시했다. 목포Y는 12월까지 총 15개 업체를 대상으로



여성 친화적 기업환경 조성을 위한 교육을 할 예정이다.

순천YWCA 김사라 간사 장애인 홈스테이 프로그램



순천Y 순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는 10월 15일부터 17일까지 춘천시 거주 장애인 열 가정 초청 홈스테이를 했다. YO이사, 직원, 자원봉사자 가정에서 홈스테이를 하며 순천관람을 함께 했다. 장애인가정과 비장애인가정이 교류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었다.

여수YWCA 박진희 간사 동아리(락)페스티벌



여수Y는 10월 12일 학동 거북선공원에서 제4회 동아리樂(락) 페스티벌을 개최했다. 이 행사는 교내 동아리, 청소년단체 동아리 등 지역 내 다양한 청소년 동아리가 마음껏 활동할 수 있는 종합축제의 장이다. 댄스·밴드·합창·환경·봉사·만화·영화·창작 등 40여 개의 동아리가 공연을 통해 실력을 발휘하고, 부스를 운영하여 관람객들이 다양한 체험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한다.

제주YWCA

장진우 간사

2013 특성화고 청년 Job Fair

제주Y는 10월 10일 중소기업중합지원센터에서 '2013 특성화고 청년 Job Fair'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특성화고 고졸(예정) 취업 희망자의 취업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구직자 1천여 명이 참여했다.

착한 회식문화 캠페인

제주Y는 9월 30일 제주시청 어울림마당에서 '착한회식문화 캠페인'을 개최했다.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제주도민들에게 회식문화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으며, 1,9 운동(1차 9시까지), 222운동(잔은 2분의1, 건배제외는 2번, 2시간 이내 회식종료), 점심회식 권장, 다양한 회식문화 등을 홍보했다. 이와 관련하여 착한회식문화 실천사례 및 아이디어 공모전도 진행하고 있다.

서귀포YWCA

김지희 간사

구인·구직 만남의 날

서귀포Y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10월 8일 Y회관에서 '2013 구인·구직 만남의 날'을 열었다. 이번 구인·구직 만남의 날은 여성근로자 50여명 채용을 위해 10개의 기업이 현장면접에 참여하고, 20개 기업이 서류 접수를 통한 간접채용으로 참여했다. 이외에도 취업지원관에서는 구직자에게 이력서클리닉, 메이크업, 이력서사진촬영을 함으로써 현장면접이 용이하도록 하였고, 직업체험관에서는 최근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직종에 대한 직종설명회와 직업체험의 기회를 제공했다.

동부

대구YWCA

김세형 차장

대구YWCA 창립 90주년 기념음악회

대구Y는 창립 90주년을 맞아 10월 17일에는 창립 90주년 기념 평화음악회를 가졌다. 한국YWCA연합회 평화홍보대사인 팜페라테너 임형주의 무대를 비롯하여, 피아니스트 조재혁, 영재피아니스트 박재홍, 소프라노 최윤희, 베이스 권순동 교수가 평화의 노래를 불렀다. 이번 평화음악회는 한 사람의 티켓구매로 한 명의 이웃(문화소외계층)에게 음악회를 관람할 수 있도록 티켓 기부를 했다. 또한 수익금의 일부는 북한어린아들기운동에 쓰였다.

치매특별등급 시범사업 기관선정

대구Y노인복지센터가 치매특별등급 시범사업 시행기관으로 선정되었다. 국가 치매관리종합계획의 일환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전국 6개 지역에서 실시되는 치매특별등급 시범지역에 대구광역시 달서구가 선정되었다. 대구Y노인복지센터는 9월부터 12월까지 경증치매환자들을 위해 전문 요양보호사를 파견한다. 치매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가는 상황에서 경증치매어르신들과 가족들을 위해 이번 시범사업으로 현장의 목소리가 잘 전달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부산YWCA

박지영 간사

고리원전 단식릴레이 기도회



부산Y는 9월 30일 고리원전 정문 앞에서 여는 예배로 탈핵과 고리1호기의 폐쇄를 위한 40일 단식 릴레이기도회를 시작했다. 릴레이기도회는 9월 30일부터 11월 8일까지 40일간 부산기독교시인대 소속 기관의 목회자, 실무자, 부산시민, 부산시의 교인들이 부산시청 앞에서 24시간 기도회를 이어간다.

핵 없는 생명평화세상 만들기 위한 공동 선언문

부산Y는 제10차 세계교회협의회 총회에서 '핵없는 세상을 위

한 한국 그리스도인 연대'와 함께 11월 2일 고리원전 앞에서 '세계 교회와 함께하는 고리원전 간담회'를 열었다. 4일에는 벅스코 정문 앞에서 '핵없는 세상을 위한 촛불기도회와 문화제'를 열고 '세계 교회는 핵 없는 생명평화세상을 만들어야 합니다'라는 공동 선언문을 발표했다.

포항YWCA

황혜민 간사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 캠페인



포항Y는 10월 7일부터 16일까지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 캠페인을 진행했다. 포항시 유흥업소가 밀집된 곳에서 '19세미만 출입·고용금지업소' 스티커를 부착했다. 청소년들이 건전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기를 바란다.

희망과 상상콘서트

포항Y는 10월 22일 포항KBS 공개홀에서 '우리학교는 친친 와이파이존- 희망과 상상콘서트'를 진행했다. 포항시 학부모를 대상으로 문경보 소장(문청소년교육상담연구소)이 '우리 아이 마음 바라보기'라는 주제로 강의를 했다. 이번 콘서트는 부모와 자녀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마련됐다.

거제YWCA

김의향 팀장

EM 생활환경교육 강연회

거제Y는 9월 24일 근로자가족복지회관에서 'EM과의 만남-생활환경운동교육'을 했다. 이날 교육에는 임숙 강사(사)서울유용미생물환경센터의 EM 기술이론교육을 통해 유용한 미생물을 생활 속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거제 주민들은 2차 EM심화교육을 추가로 요청하여 EM비누, 주방세제 등 친환경 세제 만들기를 할 예정이다.

시민의 날 행사



거제Y는 10월 4일 거제시민의 날 행사에서 거제Y 아나바다장터를 열었다. 특히 EM제품과 노인일자리사업에서 생산하고 있는 천연세수비누와 빨래비누를 판매하고 홍보할 수 있었다.

마산YWCA

이애라 부장

다문화도서관 건강보험 ZONE 개소



마산Y 창원시 마산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10월 17일 다문화도서관 '건강보험 ZONE'을 개소했다. 건강보험공단이 다문화가족 자녀들의 언어 및 문화 차이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한 것으로 이날 개소식에 내·외빈과 다문화 가족이 참석했다.

그린하모니 환경사랑 음악회

마산Y 여성합창단 그린하모니가 10월 18일 3·15아트센터 소극장에서 정기연주회를 열었다. 이날 연주회는 '환경사랑'을 주제로 열렸으며 깨끗한 환경을 후대에 물려주고자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어냈다. 마산YWCA어린이집의 합창, 인형극 등 특별무대도 있었다.

사천YWCA

정희경 간사

취약계층 노인 소비자교육



사천Y 소비자상담실에서는 10월 10일 삼한평생대학에서 노인소비자교육을 진행했다. 소비자 피해예방 수칙교육 및 상조계약 등 유형별 사례에 따른 대처방안, 청약철회, 계약취소 방법 교육으로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날 300여 명이 참석했다.

**결혼이민자 멘토-멘티 하반기 나들이**

사천Y 사천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10월 11일 산청의약엑스포로 결혼이민자 멘토-멘티 하반기 나들이를 다녀왔다. 한국문화탐방, 체험활동을 통해 결혼이민자의 적응 스트레스 및 문화격차를 해소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양산YWCA**

**박경하 간사**

**아나바다 장터**



양산Y는 10월 4일부터 6일까지 양산삼량문화축전 기간에 환경실천캠페인 '아나바다 장터'를 열었다. '아나바다 장터'에서 판매되는 물품은 집에서 입지 않는 의류, 신발, 가방, 생활용품, 집기류 등으로 매우 다양하며 가격도 저렴하다. 시민들은 중고물품에 큰 관심을 보였다. 양산Y는 아나바다 장터를 통해 자원재활용 문화를 만들고, 자원절약과 과소비를 지양하고 에너지를 아끼는 체험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한다.

**진주YWCA**

**김태진 간사**

**다문화 여성중창단 문화나눔 활동**



진주Y 다문화 여성중창단은 진주지역 곳곳에 아름다운 하모니를 통한 문화나눔 활동을 펼치고 있다. 10월 4일 진주제일병원 로비에서의 공연을 시작으로 병원과 지역 곳곳에서 공연을 한다.

**애들이 밥먹자**

진주Y는 10월 15일 진주대야고등학교에서 '애들이 밥먹자'를 진행했다. 진주Y 이사, 실무자 외 20여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1,400인 분의 주먹밥을 준비했다. 학생과 자원봉사자 모두 기쁨과 보람을 나누었다.

**창원YWCA**

**박소라 간사**

**창원복지박람회 YWCA 부스 운영**



창원Y는 10월 12일 CECO에서 열리는 2013 창원복지박람회에 참여하여 부스를 운영했다. 창원Y에서 운영하는 무료빨래방과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에 대해 소개를 하고 300여 명의 시민들이 쌀뜨물 EM발효액만들기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



**플랫 b**

한국YWCA연합회 지음 / 도서출판 시금치

지난 10년간의 한국여성지도자상 수상자 중 젊은여성지도자 8명의 이야기를 엮은 인터뷰 모음이다. 삶에서 겪은 어려움을 돌파하기 위한 자기 확신의 과정은 어떠했는지를 보여준다. 성공만을 추구하는 사회에서 자신을 부정하고 방황하며 절망하는 청년들에게 용기와 공감을 전하고, 자기의 삶에 확신을 가지며 최선을 다하는 청년들을 응원한다.

이 책의 판매 수익금 일부는 청년활동 지원금으로 쓰인다.



**디어 라이프**

엘리스 먼로 지음 / 정연희 옮김 / 문학동네

2013년 노벨문학상 수상 작가인 엘리스 먼로의 최신작이자 그녀 작가 인생의 마지막 작품. 작가가 어린 시절을 회고한 표제작 '디어 라이프'를 포함해, 언니의 익사사고 이후 평생을 그 기억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동생을 그린 '자갈', 전쟁터에서 고향으로 돌아가던 중 약혼녀로부터 도망치기 위해 기차에서 뛰어내린 군인에 대한 이야기인 '기차', 남편과의 결혼 생활에 권태를 느끼며 호감을 가졌던 남자를 만나겠다는 희미한 희망을 품은 젊은 시인을 그린 '일본에 가 닿기를' 등 총 14편의 단편이 실려 있다.



**한반도는 아프다: 적대적 공생의 비극**

한완상 지음 / 한울

한반도 평화체제 정착을 위해 정진해온 '진보적 자유주의자'인 저자가 공직생활 15년간 꼼꼼히 기록한 현대정치사의 현장이다. 지난 60년간 분단이 열전과 냉전 속에서 고착되면서 민족의 평화와 통일을 어렵게 하는 또 하나의 비극이 우리 속에서 잉태되고 자라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남북 간의 불신과 대결, 증오와 긴장을 부추기는 '적대적 공생관계'의 작동이다. 그렇다면 적대적 공생관계란 무엇인지 밝히고 있다.



**한국탈핵: 대한민국 모든 시민들을 위한 탈핵 교과서**

김익중 지음 / 한티재

그동안 김익중 교수가 행했던 강의 기록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묶은 것이다. 이 책은 깊고 어려운 학술적인 내용보다는 핵발전소에 관한 전체적인 관점을 정리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후쿠시마 핵사고, 핵사고의 확률, 한국의 위험 정도, 방사능의 건강영향, 핵폐기물, 핵재처리, 원자력의 대안 등 원자력과 관련된 이슈들 전반을 두루 다루고 있다. 정평이나 있는 그의 강의만큼, 누구라도 이해하기 쉽다는 점이 이 책의 가장 큰 미덕이다.